

코스피	코스닥
2745.82	910.05
(-9.29)	(-1.20)
금리	환율
3.293	1346.20
(+0.005)	(-2.50)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
장·차남이 이겼다
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범식에서 엄지척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후보들과 함께 상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거야 심판’ vs ‘尹정권 심판’ 수도권 혈투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민주 제외 모든 지도부 ‘0시’ 출격
한동훈, 송파 가락시장서 지원 개시
이재명, 인천서 출근 인사로 시작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0시를 기해 전국 254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지도부는 선거운동 시작에 맞춰 서울에서 일제히 유세에 돌입했으나, 더불어민주당만 ‘0시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았다. <관련기사 4·6면>
녹색정의당은 서울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의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

문한 뒤 서울시청 합동분향소에서 헌화했다. 개혁신당은 영등포소방서를 격려 방문하고, 새로운미래는 송파 가락시장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0시경 부산역에 도착해 사회관계장서 비스(SNS)를 통해 출정 선언을 통해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한동훈, ‘이재명·조국 심판’ 외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가락시장을 시작으로 서울 마포, 용산, 중·성동, 광진, 동대문, 강북, 도봉, 노원을 비롯해 경기 남양주, 의정부를 돌며 유세 지원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들’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소개하며 정치·민생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아들

리 정치개혁과 민생개혁을 당론으로 내걸고 전진할 것이며, 그 전제로 범죄 세력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자정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을 개시한 이유에 대해 “땀 흘려서 일하는 생활인들의 현장에서 시작하고 싶었다”며 “열심히 일하는 생활인들을 대변하는 정당인 국민들께 민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가락시장에서 0시에 첫발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 민생개혁, 이·조(이재명·조국) 세력의 심판을 위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정말 일하고 싶고,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면에 계속>

/박정익·김현정·안승진 기자 pathfinder@

m-커버스토리

반감기 앞두고 불장 “비트코인 2억 간다”

가상화폐 전성시대

플러코스터 장세 속 거래량 ↑
5개 거래소, 하루최고 13조 거래
이더리움도 510만원까지 회복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가 경신 후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10% 넘게 하락했지만 투자자들의 열기는 여전하다. 20~40대 이외에도 50~60대 중장년층도 가상화폐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다음 달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지속 상승에 무게가 실린다.

28일 국내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지난 19일 9200만원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일주일 만에 1억원 진입에 성공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13일 1억4000만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연저점을 기록한 1월 1일(1만6200달러·2100만원) 대비 해외거래소에서는 330%, 국내거래소 기준으로는 무려 380%나 급등했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 역시 지난 13일 역대 최고가인 570만원을 기록한 이후 470만원까지 하락, 현재는 510만원까지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 26일 한때 1억원을 재돌파했다. /뉴시스

회복했다. 이더리움 역시 지난해 연저점을 기록한 1월 1일(132만원) 대비 242% 상승했다.

플러코스터 장세 속에서도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가상화폐시장이 전성시대에 돌입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근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팍스·코빗)의 24시간 거래대금은 8조~13조 수준으로, 이는 국내 코스피, 코스닥 시장 일 평균 거래대금과 맞먹는 수준이다. 지난 12일 오후 3시 기준 국내 가상자산의 24시간 거래액은 16조2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코스피 시장 거래대금은 9조7310억원을 기록했다. <3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韓, 세계 최초 장기모사체 대량개발 기술 보유

오가노이드가 여는 미래

④ 국내기술 어디까지 왔나

생명연, 장 줄기세포 농축 배양 성공
성인 장기 비슷한 ‘성숙화기술’ 개발

이제 막 태동을 시작한 오가노이드(장기모사체) 분야에서 한국은 선두 그룹에 서있다. 특히 국내 연구진들은 장(腸)이나 간(肝) 오가노이드 기술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갔다고 자부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장기와 가장 비슷한 수준의 모사체를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처음 보유한 국가이기도 하다. 줄기세포 분야에서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오가노이드 분야에

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장 오가노이드 분야 세계 최고

국내 장 오가노이드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관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이다.

생명연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 손미영 박사팀은 최근 세계 처음으로 장 오가노이드에서 장 줄기세포를 농축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향후 재생치료제 개발 및 다른 신약 개발 기초연구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높다.

기존 장 오가노이드는 대량 균질 배양이나, 동결보관을 통한 장기 보관이 어려웠다. 또 장 오가노이드는 내부가 비어 있는 내강(內腔)을 중심으로 상피세포와 세포 외 기질이 둘러싸고 있는

둥근 공 형태인데, 이 내강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다양한 응용 연구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인간 전분화능 줄기세포를 이용해 만든 3차원 장 오가노이드에서 고순도의 인간 장 줄기세포 집합체를 대량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줄기세포 집합체는 위에서 손상된 장 상피 세포 조직을 재생시켜 치료제로서의 이용 가능성을 높였다.

손미영 박사 연구팀은 장 오가노이드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8년 장 오가노이드를 실제 성인의 장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키워내는 ‘성숙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미성숙한 태아의 장 수준이 아닌 성인의 실제 장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들의 연

구는 논문에서만 머물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와 새로운 치료제로 탄생하고 있다.

장 오가노이드 특허기술을 오가노이드사이언스로 이전, 장 재생치료제로 개발돼 인체 투여를 시작해서다. 지난해 생명연이 장 오가노이드 모델을 활용해 개발한 유산균은 KGC인삼공사로 기술이전, 유아의 장 발달 촉진과 염증성 장질환 보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재탄생했다.

손박사는 “다양한 장 오가노이드 배양기술과 접목하여 기초연구 수준을 넘어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더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술 상용화 경쟁 불 붙었다

국내 기업들도 앞다투어 오가노이드 기술 개발에 뛰어들며 오가노이드 상용화 경쟁에 불이 붙었다.

국내 첫 오가노이드 기반 기업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지난해부터 장 재생치료제 ‘아롬(ATROM)-C’에 대한

인체 임상연구를 시작했다.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가 인체에 투여된 첫 사례다. 이제까지 베체트 장염 환자 2명에 아롬-C 투여가 이루어졌다.

셀인셀즈 역시 지난해 줄기세포 오가노이드 피부재생치료제 ‘TRTP-101’에 대한 허가용 임상시험계획을 승인 받았다. TRTP-101은 인간 유래 줄기세포를 3차원 조직형상기술을 기반으로 오가노이드로 제작한 새로운 형태의 피부재생치료제다. 이를 피부가 함몰된 위축성 흉터에 이식하면 피부조직을 재생시킬 수 있다.

티엔알바이오랩은 간, 심장, 피부 등의 오가노이드를 개발하고 있으며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간 오가노이드를 혈관 조직까지 구현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의과대(UCSD) 연구팀과 뇌 오가노이드 공동개발을 시작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북한, 다음 최고인민회의서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가능성
- ▲ 행안부, 서울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보라매병원 방문 /사진 뉴시스

- ▲ ‘尹 동창’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신고 당해... 외교부 조사 /사진 뉴시스
- ▲ 의협 “증원 근거 부족... 수가부터 개선”



- ▲ 이정현 광양서 첫 유세 “섬진강의 기적 일으킬 준비됐다” /사진 뉴시스
- ▲ 국민통합위,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은행 설립 등 11개 정책 제안

한미 경영권 분쟁, 장·차남이 이겼다... 'OCI 통합' 급제동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

임종윤 등 형제추천 이사 5명 선임
OCI 그룹 통합 무산 시킬수도 있어
모녀 측 후보 6명은 모두 선임실패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는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이 승리했다.

한미사이언스는 28일 낮 12시 경기 화성에 위치한 라비돌호텔에서 '제51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이날 주총은 오전 9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위임장 집계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면서 3시간 30분 넘게 지연됐다.

아울러 투표부터 개표까지 또 다시 3시간 넘게 걸린 끝에,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이 주주 제안으로 추천한 후보들이 모두 표대결에서 형제 측 승리를 이끌며 이사회 진입에 성공했다.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이날 출석한 주주는 본인 및 위임장에 의한 대리 출석을 포함해 2160명이다. 이들의 소유 주식 수는 5962만 4506주로 집계됐다. 이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의 88%에 해당해 이날 주총은 적법하게 결의



28일 경기 화성시 신텍스에서 열린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한미 오너가 장·차남 임종윤(왼쪽), 임종훈 형제가 주총장에 들어가고 있다. /뉴스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또 한미사이언스는 현재 상법 제369조에 따라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6776만 3663주를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내이사로 임종윤 전 사장을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주식 수는 3114만 7950주로 집계됐다. 이는 출석 의결권 대비 52.2%,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대비 46%를 차지하는 수로 해당 안건은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어 임종훈 전 사장도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임종훈 전 사장의 경우 출석 의결권 대비 51.8%,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대비 45.6%의 찬성표를 받았다.

이외에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이 제안한 ▲기타비상무이사 권규찬·배보경 선임의 건 ▲사외이사 사봉관 선임의 건도 각각 의결됐다.

반면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 후보 6명은 모두 선임 실패했다. 당초 모녀 측은 사내이사 임주현·이우현 선임, 기타비상무이사 최인영 선임, 사외이사 박경진·서정모·김하일 선임, 감사위원 박경진·서정모 선임 등을 통해 한미와 OCI의 통합에 유리한 이사회를 구성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은 주총 하루 전까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 왔다.

기존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과 임종

윤·임종훈 형제 측이 특수관계자 등을 통해 확보한 지분은 각각 35%와 28.42%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약품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고교 후배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개인 최대주주로서 형제 측을 처음 공개 지지해 형제 측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이어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은 국민연금의 지지를 얻어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과의 경영권 분쟁 판도를 2% 차이로 뒤집었다.

결국 관련 업계에서는 마지막 승부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20.5%를 보유한 소액 주주들의 표심에 달렸다는 분석이 거론돼 왔는데, 소액 주주들의 표심을 잡은 것은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이 된 것이다.

주총 직후 임종윤 전 사장은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주주 원팀"이라며 "주주들이 원하는 회사로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음을 밝혔다.

한편, 이날 주총에는 임종윤·임종훈 형제,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 박재현 한미약품 사장 등이 참석했다. 무엇보다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관계로 신성재 한미

사이언스 전무가 주총 의장을 맡았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당사 정관은 대표이사 유고 시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 순서로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성재 전무가 스스로를 '전무이사'로 소개하며 현장에서 논란이 일었다. 임종윤 전 한미약품 사장은 신성재 전무에게 '등기이사' 인지를 확인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주주도 "미등기이사는 대표이사 권한대행자가 될 수 없다는 고등법원 판례가 있다"며 "의장권에 대해서 지금 명시적으로 이의 제기하지는 않겠지만 이같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가 계속되면 의장 불신임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에도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측과 임종윤·임종훈 전 사장 측이 각각 추천한 신규 이사 후보들을 놓고 표대결 시작하기에 앞서 임종윤 전 사장의 반발이 이어졌다. 한미사이언스 측 후보 6명만 소개된 것이다. 결국 임종윤·임종훈 전 사장 측 후보 설명은 임종윤 전 사장이 직접 마무리했다.

이밖에 이날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의 안건도 다뤄졌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47조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 적극 지원

최상목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기업·지역투자 신속 가동방안 발표

정부가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 등 도합 47조 원 규모의 '18개의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 지원에 적극 나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지역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2차)'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기업·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지난해

11월 처음 발표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18개의 대형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를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세부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투자관련 규제개선 ▲행정 절차 패스트트랙 추진 ▲전력망을 포함

한 인프라조성 등 맞춤형 지원이다.

정부는 투자 관련 규제개선이 이뤄진 사례도 소개했다.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제주) ▲화장품 공장 신설(충북 청주) ▲페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구축(울산) ▲SK온 서산3공장 구축(충남 서산)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대전 유성구) ▲대전 탐립·전민 국가산단 조성(대전 유성구) ▲공유창고 기반조성 등이다.

SK온의 경우, 서산에 1조5000억 원 규

모의 이차전지공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산단 내 공사대상지역 인근 미활용 부지를 주차장·야적장으로 사용토록 법적근거 마련을 지원했다. 산단 내 공장 완공 전 미활용부지는 임차가 불가한 규제를 개선해 예외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사한 문제에 봉착한 바 있는 울산 미포산단의 페플라스틱 재활용공장 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해소했다는 게 최 부총리의 설명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행복한농촌, 함께하는 KRC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FC 한국농어촌공사



올들어 70% 이상 폭등... '금리인하·현물 ETF' 기대감 고조

비트코인 '반감기'

비트코인은 지난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로 이름만 알려진 개발자가 중앙은행이 내는 화폐를 대체한다며 시장에 선보였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현재 비트코인은 주식시장에 버금가는 규모로 성장해 하나의 투자처로 인정받고 있다. 다음 달 반감기를 앞두고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 반감기는 앞서 3번의 반감기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어 가격을 더 끌어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반감기와 다른 패턴 보여 일년전부터 신고가 등 고공행진 '반감기 효과' 가격 선반영 풀이

◆ 달라진 반감기 장세

반감기(전체 발행량이 제한된 비트코인은 약 4년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를 한 달 앞두고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 7만3000달러를 돌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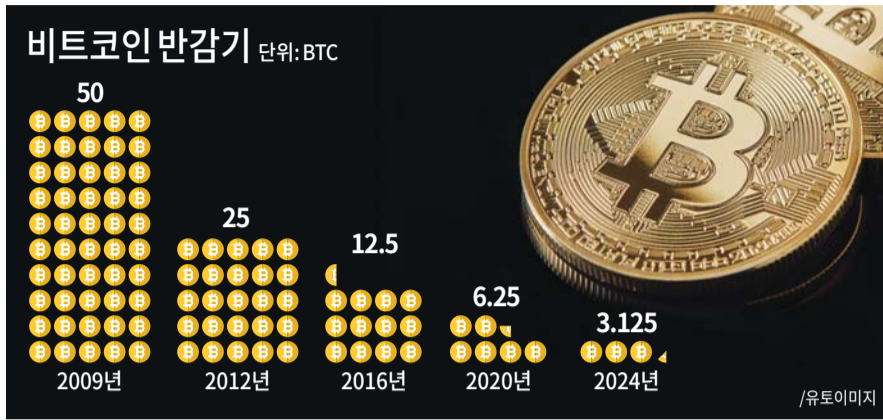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만 70% 넘게 급등하면서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 주고 있다. 최고가 경신 후 곧바로 6만2000달러까지 하락하긴 했지만, 추가 상승을 통해 다시 7만달러까지 회복한 상태다.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앞두고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과거 반감기와 다른 모습이다.

비트코인은 전체 유통량이 2100만개 선에서 제한되도록 설계돼 있다. 현재까지 1900만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채굴됐고, 모든 채굴이 끝나는 시점은 2140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채굴 보상은 2009년 첫 출시 당시 비트코인 50개였지만, 2012년 11월(채굴 보상 1블록당 25비트코인), 2016년 7월(12.5비트코인), 2020년 5월(6.25비트코인) 세 차례 반감기를 거쳐 오면서 확연히 줄어들었다. 오는 4월 24일 반감기를 거치고 나면 3.125개까지 떨어지게 된다.

과거 세 번의 반감기(2012년, 2016년, 2020년)에서는 반감기 직후엔 비트코인 가격이 큰 움직임이 없었다. 오히려 반감기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시점



부터 본격적인 상승세에 진입하는 패턴을 보였다.

지난 2012년 7월 비트코인 1개 가격은 9달러였지만 반감기인 11월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10달러를 기록했다. 4개월 사이 1달러 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반면, 6개월 후인 2013년 5월에는 148달러까지 상승하면서 무려 1380% 폭등했다.

2016년 3월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430달러, 반감기인 7월에는 650달러를 기록하면서 5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이후 6개월 뒤 1100달러를 기록했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17년 12월 1만6000달러를 돌파했다.

2020년 1월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8900달러를 기록했지만 반감기인 5월에는 8100달러를 기록하면서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지만 6개월 후 처음으로 1만8000달러 돌파에 성공했다.

연준, 연내 기준금리 인하 예고 자산운용사, 현물 ETF 운용 박차 "올해 최고가 경신 자주 발생할 것"

반면 이번 반감기를 앞둔 시점부터는 상승세가 펼쳐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터치한 이후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비트코인 가격은 3만9000달러를 기록했지만 반감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7만4000달러를 기록하면서 85%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반감기 효과'는 반감기가 지난 이후 비트코인 신규 발행량이 줄어들면서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에 선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감기 이후에도 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공급 대비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반감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건 비트코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과거 반감기 이후 가격이 상승했던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기관 투자 자금의 유입세를 가속화하면서 올해 최고가 경신이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반감기 이후 상승요인 이목집중

반감기 후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주도할 재료는 현물ETF와 주요국들의 금리인하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먼트 등이 선보인 비트코인 현물 ETF에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들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ETF 운용을 위해 비트코인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

지난주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ETF 자금 유출이 9억달러로 주 단위로는 가장 큰 자금 유출 규모를 기록했다. 전체 비트코인 현물ETF 자금이 순유입으로 돌아섰다.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두 달 만에 약 20만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고, 다른 자산운용사들 역시 5만~10만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 또한 4월 이후 미국의 종합금융사,

은행 등 더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취급할 것이라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연준)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자산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한다.

연준은 연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하면서 오는 6월 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병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현물ETF 상장 후 초반에는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으나 이후 기관투자자들의 유입에 따라 ETF 자금흐름이 크게 상승하고, 매수압력이 강해지자 급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며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한동안 암호화폐 시장의 열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이더리움, 연내 8000달러 도달할 것"

>> 1면 '반감기 앞두고 불장...'서 계속

무려 6조원 넘게 차이가 난다.

거래 시간이 제한된 주식 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은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대금 수지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지난해 1조원을 넘기기 어려웠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성장세다.

또한 다음 달 반감기까지 기다리고 있어 신규투자자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올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비트코인 및 전체 가상자산 시장의 장기적 위상향은 유효하다"며 "반감기 즈음인 4월 중순에는 미국의 종합금융사, 은행 등 더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취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스탠다드 차타드(SC)는 "올해 비트코인 가격 전망치는 15만 달러(약 2억원)"라며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5월 23일(현지시간)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 올해 이더리움 가격을 8000달러(약 1074만원)로 전망했다"고 분석했다. /이승용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Shinhan

신한투자증권 앱의 새 이름
신한 SOL 증권

투자를 새롭게, 즐거움은 더 크게
새로운 투자의 즐거움, 신한 SOL 증권이 함께하겠습니다

IOS AOS

신한 SOL 증권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신한투자증권

野 “尹정권 무능에 폭망” vs 與 “이재명·조국, 뻔뻔한 범죄자”

(이재명)

(한동훈)

>> 1면 '거야 심판...'서 계속

한 “불합리한 규제 모두 해소 범죄자들 지배하면 미래없다”

이 “물가폭등·민생 등 파탄났다 한국 퇴행시킨 장본인尹정권”

가락시장 민생 현장 방문을 마친 한 위원장은 망원역으로 이동해 조정훈 서울 마포구갑 국회의원 후보와 함운경 마포을 국회의원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저희는 어제 여의도의 구태 정치를 종식시키는 상징으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서울 시민에게 돌려 드린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는 서울 전 지역에 새로운 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재건축과 관련한 규제를 해소하고 여러분 삶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모두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정훈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경제전문가이고 실천가”라며 “조정훈이 마포에 집중한다는 건 국민의힘이 마포에 집중할 것이란 걸 말하는 거다. 마포를 조정훈과 함께 바꾸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 “함운경은 여러 가지 인생 역정을 가진 분이다. 선동가가 아니라 진짜 생활인이다”면서 “함운경은 재건축과 재개발



제22대 총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오후 선거 유세현장인 서울 강북구 강북구청앞 광장이 인파로 가득 차 있다. /뉴스시

에 대해 명분을 가지고 실속 있게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신촌 유플렉스로 자리를 옮겨 집중 유세를 펼친 한 위원장은 범죄자들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전진하느냐 후진하느냐, 융성하느냐 쇠퇴하느냐, 정의로워지느냐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이재명, 조국 대표들은 그 속내를 숨기지 않는다. 뻔뻔한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뻔뻔한 범죄자들이 선량한 지배자들을 제도로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나라”라며 “경제·민생·정치 개혁을 위한 선결 조건이 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걸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윤석열 정권 심판'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등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 자신의 지역구 인천 계양역 출근인사를 시작으로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역 광장에서 '정권

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시작으로 서울 중·성동, 동작, 인천 시당 총선 출정식(부평) 등 서울과 인천을 오가며 선거 유세 지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에서 지지자들이 파란 풍선과 '1'과 '3'이 적힌 피켓을 흔들며 이재명을 연호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권 심판열차가 국민승리라는 최종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합니다”라고 출정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 고통, 그 자체”라며 “정권의 무능 때문에 물가는 폭등하고, 이자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공공요금도 올랐다.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폭망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 국가의 위상도 추락했다. 전쟁 불사만 외치는 정권의 어리석음 때문에 한반도 평화도 위기를 맞았다”며 “2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퇴행시킨 장본인은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2년 내내 국민을 속여왔다. 기본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도 파괴됐다”며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 공화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심판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권 심판이 대한민국 정상

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압도적 심판의지를 확실히 실천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권의 폭정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멈추고,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나라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며 “민생을 되살리고,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돌리겠다”고 외쳤다.

이 대표는 출정식 후 중구·성동구로 이동해 전현희 후보와 박성준 후보의 유세 지원에 나섰고, 이후 동작으로 이동해 류삼영 후보와 김병기 후보의 유세에도 함께 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는 바로 국민이다”라며 “국민을 업신여기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마련한 예산을 사적이익을 추구하는데 남용했던 정치 집단에게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인지, 누가 진정한 권력의 주체인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결하는 장이 아닌,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장이다”라며 “민주당이 승리하는 게 아닌, 국민이 승리하는, 국민이 바로 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보여주는 승리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익·김현정·안승진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선거운동 과정에서 폭력·가짜뉴스,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한 총리, '선거 지원 관계장관 회의' 검찰 24시간 선거사범 대응체제 구축 사전투표부터 '투개표지원상황실' 운영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선거운동 과정에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선거 지원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 재외동포청장, 우정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와 경찰은 최근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및 유력 정치인 대상 테러행위 등 신종 선거범죄 반발 상황을 고려한 선거사범 단속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허위사실공표·흑색선전 ▲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불법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원칙을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이를 위해 24시간 선거사범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가짜뉴스, 허위 선동, 선거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투개표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크게 확대하고 휴식권 보장과 선거수당 인상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전투표 우편물이 투표소에서 지역 선관위까지 이동하는 전 과정에 경찰이 호송하기로 했다. 종래에는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으로 이동하는 첫 단계에서만 경찰이 호송했었다.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은 지난 27일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재외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재외공관 178개와 파병부대 3개 등에 투표소 220개를 설치하고 인력을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공직 기강 확립 조치도 논의됐다. 인사혁신처와 행안부를 중심으로 공무원 정치 중립 교육을 실시하고, 행안부는 시도 합동감찰반을 통해 전국 지자체 공무원 집중 감찰에 나선다.

정부는 행안부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선거 지원을 모니터링하고,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4월 5일부터는 ‘투개표지원상황실’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민주주의 발전의 시금석일 뿐 아니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서도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4·10 총선 사전투표는 4월 5~6일 이틀간 가능하다. 총선 당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번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재보궐선거 45명을 선출한다. /뉴스시

후보자 선거벽보 전국 8만3630곳 첩부

“벽보 훼손·철거는 중대범죄”

제22대 4·10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29일까지 전국 8만3600여 곳에 붙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선거벽보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3630여 곳에 첩부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

기호, 학력·경력·정견 등이 담긴다. 이 밖에도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허위 정보가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지역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해당 정보가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 그 사실을 공고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뉴스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2주 앞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선거벽보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시

Giants

鬪魂鬪志

투 온 투 지



BNK 가을야구 정기예금

- [가입금액] 3백만원 이상 (원단위)
- [가입대상] 제한없음(단, 금융기관 및 별도 협약 시금고는 제외)
- [가입기간] 12개월
- [적용금리] 최저 연 3.20% ~ 최고 연 3.80%
(2024.03.20 현재, 세전, 최고이율은 기본이율 3.20%+우대이율 최대 0.60%p 모두 적용 시)
- [우대이율항목] ① 가을야구 임원기원 우대 0.3%p(모든 고객 적용)
② 비대면 채널 가입 우대 0.1%p
③ 포스트시즌 진출우대 최대 0.1%p
④ 신규고객 우대(가입일 전일 기준 3년 이내 당행 예적금 가입이력 없는 고객) 0.1%p
-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특판 기간] 2024.03.20 ~ 2024.05.31(단, 한도 5천억원 소진 시 조기종료)
- [예상수취이자액] 예치금액 1천만원 가정 적용금리 3.80%, 총 이자(세전) 380,000원

BNK 가을야구 드림적금

- [가입금액] 1만원 ~ 1백만원(만원단위)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 [가입기간] 12개월
- [적용금리] 최저 연 4.00% ~ 최고 연 5.00%
(2024.03.25 현재, 세전, 최고이율은 기본이율 4.00%+우대이율 최대 1.00%p 모두 적용 시)
- [우대이율항목] ① 가을야구 우대(최종순위로 전고객지급)
0.5%p(한국시리즈우승), 0.3%p(플레이오프 진출), 0.2%p(포스트시즌진출)
② 비대면 채널 가입 우대 0.1%p
③ 타격 또는 투수 최우수선수 배출 최대 0.2%p(투수,타자 각 0.1%p)
④ 신규고객 우대(가입일 전일 기준 3년 이내 당행 예적금 가입이력 없는 고객) 0.2%p
-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특판 기간] 2024.03.25 ~ 2024.05.31(단, 한도 1만좌 소진 시 조기종료)
- [예상수취이자액] 월납입액 5십만원 가정, 적용금리 5.00%, 총 이자(세전) 162,500원

※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 우대이율은 만기 해지시에 지급하며, 중도해지 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은행으로부터 계약체결을 권유받거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1588-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410(심의일자 2024. 03. 19) | 유효기간 2024. 03. 20 ~ 2024. 05. 31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

東進하는 민주당 vs 西進하는 국민의힘, 중앙에서 백중지세

총선 서울 판세 분석 ②한강 이남

서남권, 정권심판론 바람 불어 與 중량감·신선한 후보로 공략
중남권, 대부분 접전 지역 쪼뿔려 용산·영등포를 與野 재대결 치러
강남·서초구 '보수일변도' 유지 野 홍익표, 서초을서 선전 '기대'



강태웅 더불어민주당 용산 후보가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용산구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사거리에서 열린 '국민의 힘으로 용산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가 13일 서울 서초구 상문고등학교 앞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한강 이남 27개 지역의 판세 분석 결과, 서울서남권(강서갑·강서을·강서병·구로갑·구로을·양천갑·양천을·관악갑·관악을·금천)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세, 중남권(용산·동작갑·동작을·영등포갑·영등포을·광진갑·광진을)은 접전, 강남권(서초갑·서초을·강남갑·강남을·강남병·송파갑·송파을·송파병·강동갑·강동을)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각 정당의 우세와 접전 속에서 이번 총선을 가를 한강 이남의 격전지 민심의 향배를 살펴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 서남권 격전지 '강서을'·'양천갑'

총 10개 지역구가 있는 서남권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후보들의 '현역 프리미엄'을 극복해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0개 지역구 중 9곳에 현역 의원을 공천했고 관악갑에만 박민규 민주당 후보가 새로운 얼굴로 공천장을 받았다.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불어온 정권심판론의 바람이 서남권을 떠나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중량감 있거나 신선한 후보를 내세워 격전지를 공략하려는 모양새다.

서남권의 격전지는 '강서을'과 '양천갑'이 꼽힌다. 강서을엔 민주당의 '전략통'으로 꼽히는 진성준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자 재선 의원 출신인 박민식 국민의힘 후

보가 맞붙는다. 강서을은 김성태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리 3선을 했을만큼 강서구 3개 지역구 중에서도 보수세 결집이 가능한 곳이다.

양천갑은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황희 의원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대위원으로 활약한 구자룡 국민의힘 후보가 붙는다. 양천갑은 인천 계양구에 출마한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내리 3선을 한 곳이고 최근 4번의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번씩 나눠 이긴 곳이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을 읽을 수 있는 곳으로도 꼽힌다.

◆ '총성 없는 전쟁' 중남권

중남권은 대부분이 접전 지역으로 꼽히며 서울 판세를 가를 중요한 권역으로 떠올랐다. 먼저 용산은 강태웅 민주당 후보와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의 리턴매치가 치러진다. 두 사람은 21대 총선에서 득표율 0.66%포인트 차, 약 3800표차로 강태웅 후보가 패배한 바 있다.

동작구의 2개의 선거구 가운데서도 동작을 지역구는 경찰 간부 출신 정치신인 류삼영 민주당 후보와 여당 중진이자 공동선대대책위원장직을 맡은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다. 상대적 열세로 평가받는 류삼영 후보를 지

원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가 동작을 지역구를 여러번 찾아 지원을 했지만, 나 후보의 중량감을 극복하기 쉽지 않은 모양새다.

여의도를 관할하는 영등포을 지역구도 총선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후보와 앵커 출신인 박용찬 국민의힘 후보의 재대결이 치러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에서 시민들과 박 후보와 함께 출근 인사를 하며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 '송파'와 '강동'에선 접전 주목

강남구와 서초구는 '보수일변도' 지지세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를 양보하고 서울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긴 홍익표 후보가 중편방송사 앵커 출신인 신동욱 후보를 맞아 선전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강남권에선 서초와 강남 이외에 송파와 강동에서 여야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서초와 강남만큼은 아니지만 보수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송파에선 조재희 민주당 후보와 박정훈 국민의힘 후보가 갑지역구에서, 송기호 민주당 후보와 배현진 국민의힘 후보가 을지역구에서, 남인순 민주당 후보와 김근식 국민의힘 후보가 병지역구에서 맞붙는다.

강동갑에선 현역인 진선미 민주당 후보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도왔던 전주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결을 치른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황명선 “시민이 주인인 고장 만들겠다”

총선, 이 후보가 궁금하다 野 충남 논산·계룡시 금산군 후보 고향인 충남 논산 지방행정 전문가 “尹, 서울집중화 방치... 지방소멸 우려”



황명선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후보(57)가 지난 23일 충남 논산시에서 열린 딸기 축제에 방문해 참가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황명선 캠프

황명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후보(57)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축적한 역량과 경험을 토대로 논산·계룡·금산 시민이 주인인 고장, 나아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욱 헌신하고자 출마했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은 민주당을 떠나 새로운미래로 합류한 김종민 의원이 현역인 지역구이지만, 김 의원이 세종갑에 출마함에 따라 새판이 짜이게 됐다. 이번 선거에선 황명선 민주당 후보, 박성규 국민의힘 후보, 이창원 무소속 후보가 출마했다.

황명선 후보는 고향인 충남 논산에서 서울시의원과 3선 논산시장을 지낸 지방행정 전문가다. 이재명 당 대표 체제에선 당의 대변인을 맡으며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기도 했다. 지방행정과 예산집행 전문가인 황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이 “한심하다”고 평가했다.

황 후보는 “대파 한 단, 사과 한 알 마음 편히 살 수가 없고 물가와 금리는 치솟는데, 월급과 일자리는 부족하기만 하다”며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논산·계룡·금산의 주인은 주민이다. 머슴

이 주인 말을 듣지 않으며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며 정권심판론을 띄웠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특히,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역행해 서울 집중화를 방치해 지역은 더욱 피해해지면서 이제는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라면서 “12년 동안 3선 논산시장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농가가 많은 지역구에 특성상, 황 후보는 농업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농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에 대한 정책이 아예없는 ‘농업포기’ 상태인 것에 분노하고 있다”며 “농업의 특성상 먼저 대출로 농사를 짓고 가을이나 추수기에 대출이자를 갚는데, 이자는 높아지고 비료나 원자재, 인건비 등 생산원가는 치솟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나 지원은 전무하고

유통과정도 엉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과 한 알에 만원이지만, 현장에선 2000원인 상황이다. 지역특산물인 딸기, 인삼, 갯잎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많은 논산계룡금산 주민들께서 ‘못살겠다! 심판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부연했다.

황 후보는 중앙공약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입법해 쌀값과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지역사랑상품권을 개정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발전 6대 공약으로 ▲육군 사관학교 이전 추진 ▲스마트극방산업 단지 기업유치▲대실지구 이케아부지 개발 적극 추진▲맑은 물 공급(노후상수도관 교체)▲인삼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재 추진▲금산 인삼약초산업진흥원 국가기관 승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與, 의정갈등 속 새로운 ‘간호사법’ 발의

의료법서 간호사 업무범위 독립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28일 새로운 간호법을 발의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호사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을 다듬은 것이다. 법안명도 기존 간호법에서 ‘간호사법’으로 바꿨다.

간호사법의 제안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수한 간호사의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및 권리보장, 간호사 대 환자수 규정, 지역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의 숙련된 간호사 양성 및 확보,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간호법과 간호사법 모두 전문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업무범위를 의료법에서 떼 내 독립적인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사들의 진료공백을 간호사들이 부담하게 매우는 일을 법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안은 제11조, 12조, 13조를 통해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했다. 또 정부는 간호사 1인



간호사들이 27일 서울 강서구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 /뉴시스

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제27조),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제28조)는 규정도 담았다.

아울러 제31조부터 35조까지는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간호사 실태조사를 시행하며, 복지부 장관 소속 간호정책심의위를 뒤 간호사 양성 및 처우를 논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제30조의 경우 사실상 간호사가 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인 만큼 의사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9일 한 방송에 출연해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보건의료기법법을 근거로 추진해나가고 필요하다면 제도화하는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뉴시스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증권사
PB

한 명쯤은

알면
😊
좋잖아요

이제, 내 투자에도 믿는 고객이 생겼다



비대면 프라이빗 자산관리 서비스 KB증권 PRIME CLUB

- ☑ 자산관리 규모 제한 없이!
- ☑ 누구나 전화나톡으로 똑딱!



PRIME 센터
무료 자산관리 상담
1566-0055

투자를 똑딱! **개비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3627호(2023.09.26~2024.09.25)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국내 주식 거래 시 수수료(비대면 계좌) HTS/홈페이지 0.015%/모바일 0.12%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거래 이자율은 비대면 계좌(또는 위탁수수료 혜택계좌)가 영업점 개설 계좌보다 더 높게 적용됩니다.(비대면 계좌 최대 연 9.1%~최소 연 5.5%, 일반 계좌 최대 연 9.1%~최소 연 4.9%) *PRIME CLUB 1만 원 결제 유형(자동이체)으로 가입 시 월 1만 원 이용 요금 출금되며, '프라임클럽 매월 1종목 증정 이벤트'에 참여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프라임클럽 매월 1종목 증정 이벤트' 공지 참조) *PRIME CLUB 무료 회원 가입 시 별도 비용 없이 계속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B노선 개통땀 여의도 10분대... 동아아파트 주변 화재 산적

GTX 노선 따라가보니

부평

尹, 'B노선' 착공 기념식 참석
수요자 문의 늘고 기대감 고조

부평구 추진 9개사업 절반이상
동아아파트 주변에서 진행

“2030년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이 개통되면 부평에서 여의도까지 30분 걸리던 것이 10분으로 단축되는 등 화재가 상당할 것이다.”

최근 찾아간 인천 부평구 '동아아파트'. 단지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GTX-B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기대감이 고조됐다”면서 “매물을 찾는 수요자들의 문의 전화가 늘었고, 실제 거래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하철 1호선과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이 지나는 부평역 5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걸리는 동아아파트는 1단지과 2단지로 구성됐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1단지는 지상 최고 15층, 17개동, 전용면적 52~122㎡, 총 2475가구 규모다. 2단지는 지상 최고 20층, 22개동, 전용면적 59~164㎡, 총 2128가구 규모다. 지난 1986년(1단지)과 1995년(2단지)에 입주한 단지는 총 4603가구에 달하는 부평구 대표 대단지다.

정부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어 GTX 전체 노선을 포함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인천 부평구 '동아아파트'.



부평역 모습

/김대환 기자

부평역을 지나는 GTX-B노선은 기존 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노선을 연장해 춘천(55.7km)까지 종점을 잇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이달 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GTX B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해 “GTX가 인천의 교통은 물론 산업, 생활, 문화적 지형을 혁명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TX-B 노선이 개통되면 부평역에서 용산역까지는 15분, 서울역까지 20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현재 부평구에서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9개 사업 중 절반 이상이 동아아파트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GTX-B 노선 화재에 더불어 각종 개발 호재를 품고 있어 대장아파트의 면모를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단지 바로 앞에는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한창이었다. 해당

사업은 하천을 덮은 시멘트를 철거하는 복개작업을 통해 소하천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구간은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평구청까지 1.5km 구간에 이른다.

부평구청은 ▲법정문화도시 추진사업 ▲부평상권리네상스사업 ▲GTX-B 부평역 복합환승센터 설치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속가능부평 11번가 ▲캠프마켓 이전부지 반환 및 활용사업 ▲제1113공병단 이전부지 활용 ▲전통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 및 현대화 ▲어르신 전화 사업 등 9개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부평상권리네상스사업, GTX-B 부평역복합환승센터 설치,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속가능부평 11번가, 캠프마켓이전부지반환·활용사업 등 5개가 동아아파트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3월 셋째 주(18일 기준)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하락했다. 낙폭이 전주(-0.01%)와 같은 하락률을 보이며 20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부평구(0.00%→0.03%)는 청천·대곡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아2단지'는 이달 전용면적 59㎡가 3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전달 거래가격(3억4000만원)과 비교하면 2000만원 올랐다.

최근 부평동에서 최고가 1위를 기록한 '레미안부평'은 같은 기간 전용면적 114㎡가 7억5000만원에서 7억6000만원으로 1개월 만에 1000만원 상승했다.

단지 인근 C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지하철 7호선·인천 1호선 더블 역세권과 신축인 부분이 최고가 형성에 영향을 준 것 같다”면서 “단지는 부평구청역까지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된다. 두 개 정거장만 가면 부평역이라서 GTX 화재 영향권 안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DL이앤씨

양보없는 품질관리 작년 하자제로 달성

DL이앤씨의 품질 경영 성과와 전사적 혁신활동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8일 DL이앤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4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하자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한 결과, DL이앤씨의 하심위 하자판정건수는 2020년 37건, 2021년 12건, 2022년 4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하자판정건수 '제로'를 달성했다.

하심위는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을 법원을 대신해 해결하고자 국토부에 설치된 위원회로 지난 5년간 연평균 4300여건의 하자분쟁사건을 처리해왔다. 위원회 내 전문가 심의를 통해 하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 주체는 하자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DL이앤씨는 '품질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최고의 품질경영 철학 아래 업계 최고 수준의 혹독한 품질 관리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김대환 기자

보험 브리핑

KB손해보험

50일 이상 5000보 車보험료 5% 할인

KB손해보험이 '걸음수할인특약' 할인율을 확대했다.

◆ 많이 걸으면 자동차보험료 5% ↓

KB손해보험은 하루 5000보를 걸으면 자동차보험료를 깎아주는 '걸음수할인특약'의 할인율을 높이고 가입대상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4월 2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걸음수할인특약 할인율을 기존 3%에서 5%로 높인다. 걸음수할인특약은 청약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하루 5000보 이상 걸은 날이 50일 이상이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한화손해보험

여성 특화보험 강화 소비자 평가단 발대

한화손해보험이 소비자평가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 3040 여성 고객패널 8명 위촉장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 16기 소비자 평가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고객패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28일 밝혔다. 16기 소비자 평가단은 고객 중심 경영의 근간이 되는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여성 특화보험사로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KB금융그룹 마이데이터 통합 데이터플랫폼 구축

KB금융그룹은 28일 금융그룹 최초로 각 계열사에서 수집된 마이데이터를 통합한 'KB고객데이터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KB고객데이터플랫폼은 KB국민은행과 KB증권, KB손해보험, KB카드, KB캐피탈 총 5개 계열사사업자의 금융 마이데이터를 계열사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분석 플랫폼이다.

KB금융은 표준화된 분류 체계로 통합된 그룹마이데이터와 고도화된 고객 분석을 통해 고객별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KB금융은 KB고객데이터플랫폼의 분석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고객의 실제 수요와 시장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품 개발 방향성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고객의 신뢰에 기반한 차별화된 상품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KB금융은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마련해 KB고객데이터플랫폼의 고객 데이터를 면밀하게 관리한다. 고객 동의에 기반하여 데이터를 제공하고 개인 신용정보를 비식별화 처리하고 있으며, 접근가능한 사용자의 권한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업황악화' 저축은행, CEO 교체로 쇄신 나서

저축은행권이 대표이사 교체를 통해 분위기 쇄신에 나서고 있다. 고금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에 체급을 줄이고 새판짜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이석태 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전상욱 전 대표이사 취임 1년 만에 새 수장이 지휘봉을 잡았다. 이 대표는 우리금융지주 전략기획단, 신사업총괄 상무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0년 아주저축은행에서 우리금융지주 편입 후 세 번째 대표이사다.

이대표는 주요 사업방향으로 ▲리스크관리 ▲내실성장 ▲디지털혁신 등 세 가지를 나열했다. 올해도 저축은행권의 업황 악화가 이어질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위험관리와 미래 성장기반을 모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는 취임식에서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독자 시스템 확보를 시사했다.

모아저축은행은 6년 만에 대표이사를 교체했다. 김성도 전 대표이사의 임기가 종료되면서다. 지난 25일 김진백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그는 지난 2017년 모아저축은행에 임했다. 경영전략본부장직을 수행하면서 기획·재무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1974년생으로 올해 만 50세다. 금융



김진백 대표
모아저축은행

이석태 대표
우리금융저축은행

노남열 대표
키움에스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 이석태 대표 선임 전담수립 전문가로 경쟁력 강화

모아저축, 김진백 대표이사 선임 6년만에 수장교체로 젊은 피 수혈

키움에스저축, 노남열 대표 선임 순이익 급감 속 돌파구 모색 주력

권에서는 '젊은 CEO'로 분류된다.

김 대표이사 선임 배경에는 신사업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김상고 모아저축은행 회장의 철학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김성도 전 대표이사가 5년간 3연임에 성공하면서 지난 2021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지만 다음해인 2022년을 시작으로 순이익이 감소세다. 지난해 3분기에는 당기순손실 22억원을

기록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실적을 집계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키움에스저축은행도 1년 만에 대표이사를 바꿨다. 지난 25일 노남열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허흥범 전 대표이사는 키움증권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2016년 취임한 임경호 대표이사가 대표직에 6년간 몸담았던 것을 감안하면 교체주기를 짧게 책정했다.

허 전 대표 취임 후 순이익이 급감한 만큼 CEO 교체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저축은행은 여·수신 규모를 줄이면서 보수적인 영업을 펼치고 있다. 기존 단골 이용객인 중장년층을 지키면서 MZ세대, 잘파세대 차주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현대차그룹, 'K4·더 뉴 투싼' 공개... 글로벌 시장 공략 속도

2024 뉴욕 국제 오토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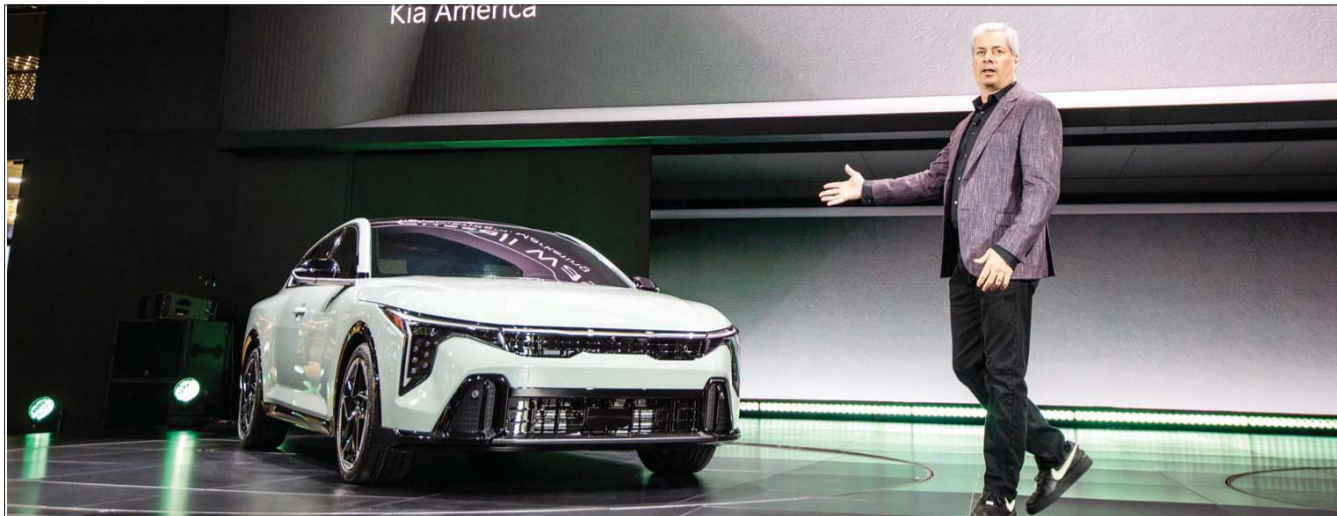
현지시장 최적화 전략모델 소개
현대차, '2025 싼타크루즈' 선보
기아, 'K4' 을 하반기 북미 출시

현대자동차·기아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 공략을 위해 신형 모델을 공개했다.

현대차·기아는 27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4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현지 시장을 겨냥한 신차를 잇따라 선보였다. 특히 기아는 기존에 없던 신모델인 준중형 세단 '더 기아 K4'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더 기아 K4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차급을 뛰어넘는 진일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준중형 차급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신형 세단이다. 역동적인 느낌이 한층 강화된 외관을 갖추고 있다.

전면부는 범퍼 가장자리에 위치한 세로형 헤드램프가 넓고 당당한 자세를 보여주고, 별자리를 형상화한 스타맵 라이팅 기술은 한층 진화된 기아의 타이어 페이스를 보여준다. 측면부는 엇갈린 사각형 조형을 따라 생성되는 빛의 유기적인 흐름을 통해 고급스러운 세단의 느낌을 표현하는 동시에 루프에서 후면부 끝까지 완만하게 이어지는 패스트백 실루엣으로 시각적 역동성을 극대화했다. 후면부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차체의 가장 끝에 배치한 세로형 램프가 하단부 범퍼를 수직으로 잘라내듯 길게 이어지며 에어 디퓨저와 함께



27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제이콥 재비츠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4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러셀 와거 기아 미국판매법인 마케팅담당(상무)이 '더 기아 K4'를 소개하고 있다. /기아



현대차는 '더 뉴 투싼(좌)'과 '2025 싼타크루즈(우)'를 최초 공개했다. /현대차



/현대차

강인한 느낌을 더한다.

더 뉴 K4의 전장은 4710mm, 전폭은 1850mm다. 생성형 AI(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기아 AI 어시스턴트'가 탑재된 점도 돋보인다. "헤이, 기아(Hey, Kia)"로 시작하는 질문을 던지면, 이용자와 대화하는 방식이다. 운전자가 다채로운 여행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겠다

는 것이다.

K4는 개발 단계부터 북미 시장을 노린 해외 전략 모델이다. 국내 출시 계획은 없으며, 올 하반기 북미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국내에선 K3를 올 하반기 단종하고 후속으로 준중형 세단 전기차인 EV4를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기아 관계자는 "K4는 앞선 기술과 과

력한 퍼포먼스를 갖춘 역동적인 세단을 제공할 것"이라며 "K4는 기대 이상의 상품성으로 고객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도 이날 미국 현지 시장을 겨냥해 준중형 SUV '더 뉴 투싼'을 공개했다. 3년 만에 선보이는 투싼의 부분

변경 모델로, 이전 모델보다 실내 공간이 넓어지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등 편의사양이 강화됐다.

투싼은 현대차의 차종 중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다. 작년 미국에서 20만 9624대가 팔렸고, 지난 5년간 미국서 79만 6918대가 팔렸다. 내연기관은 물론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등 다양한 모델로 출시된다.

현대차가 새롭게 선보인 투싼은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대폭 개선된 넓고 스마트한 실내 공간, HEV, PHEV, 내연기관에 이르는 다양한 라인업, 차급을 뛰어넘는 최고 수준의 상품 경쟁력 등이 주요 특징이다. 스포티한 이미지를 강조한 XRT 모델 및 N 라인 모델을 함께 운영한다. 또 첨단 주행 신기술을 적용하고 정속성을 강화해 주행감성을 높였으며, 2열 사이드 에어백 추가 및 차체 보강을 통해 전반적인 충돌 안전 성능을 향상시켰다.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구동 모터를 활용해 주행성능과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한 차원 진보된 하이브리드 시스템 'E-모션 드라이브'가 적용됐다.

또 현대차는 이날 북미 전용 픽업트럭인 '2025 싼타크루즈'를 처음 공개했다. 싼타크루즈를 2021년 북미 시장에 내놓은 이후, 처음으로 상품성을 개선해 선보이는 것이다. 강인한 외장 디자인과 더불어 실용성과 기술력이 강조된 내장 디자인을 구현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K이노, 박상규 대표 체제... "전체 사업영역 체질개선"

정기주주총회

효율성 관점 전략방향 재점검
"내실다지기 통해 새로운 도약"

"전면적인 체질 개선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올해 SK이노베이션 전략 방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제17기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박상규 사내이사 선임 ▲강동수 사내이사 선임 ▲장용호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이지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백복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건이



SK이노베이션 박상규 총괄 사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서린빌딩 수펙스홀에서 개최된 'SK이노베이션 제1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주주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총괄 사장은 SK그룹 내 다양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SK이노베이션 계열 사업 포트폴리오의 내실

강화 및 성과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았다. 박 사장은 주총 이후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강동수 SK이노베이션 전략·재무 부문장은 이사회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 성과관리, 신규사업 추진 경험과 역량을 인정받아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장용호 SK㈜ 사장은 사업·전략 전문가로서 SK이노베이션 계열 전반의 사업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돼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됐다. 또 SK이노베이션은 김정관, 최우석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백복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이지은 前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를 새롭게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외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후에 배당 기일을 정하도록 한 정관 일부 개정 ▲재무제표 승인 ▲임원퇴직금규정

개정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정기주총 이후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주주와 경영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주주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 강동수 SK이노베이션 전략·재무부문장과 최영찬 SK온 최고관리책임자(CAO) 사장이 SK이노베이션과 SK온의 2024년 전략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효율성 관점에서 전체적인 전략 방향을 재점검하고 안정적 사업구조와 재무구조 구축에 힘을 계획했다.

박 사장은 "전체 사업영역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겠다"며 "이러한 내실 다지기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모비스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용인 기술연구소에서 '모비스 소프트웨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현대모비스

'모비스 SW 컨퍼런스' 성료

현대모비스 전문 개발자들과 연구원들이 미래 모빌리티 핵심 영역인 소프트웨어 분야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기술연구소에서 '모비스 소프트웨어(SW)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행사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최신 기술 트렌드와 정보, 그리고 다양한 연구 사례가 공유됐다.

압둘 칼릭 현대모비스 SW혁신센터장은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며 "모빌리티 플랫폼 프로바이더 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231@

포스코퓨처엠, 아시아 '30대 혁신 기업' 선정

포스코퓨처엠이 미래 성장을 이끌어 나갈 아시아 30대 혁신 기업에 선정됐다.

28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아시아 퓨처 30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매출액 또는 시가총액 100억달러 이상의 700여개 기업 중 장기 성장을 이끌 혁신성과 활력을 갖춘 상위 30개 기업이다.

올해 처음 발표된 30개 기업에는 포

스커퓨처엠 외에도 친환경·인공지능(AI)·전기차업종에서 알리바바 헬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BYD(비야디), 니오(NIO), 이브 에너지(EVE Energy) 등이 포함됐다.

국내 기업 중에는 포스코퓨처엠을 비롯해 네이버, 셀트리온, 카카오가 선정됐다.

포스코퓨처엠 유병욱 사장은 "각 분야 선도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아시아 시장에서 성장을 이끌어갈 혁신 기업으로 인정받았다"며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소재 기업으로 성장을 지속하도록 모든 임직원들과 함께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창사 40주년, SKT “AI로 韓 산업 성공 스토리 만들겠다”

AI 강조한 새 캐치프레이즈 공개
韓 역량 끌어올릴 의지·비전 담아
유영상 “글로벌 AI 컴퍼니 도약”

“새로운 40년의 원년이 될 올해 SK텔레콤은 AI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 또 한번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겠다”

SK텔레콤이 창사 40주년을 맞아 ‘글로벌 AI 컴퍼니’로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SKT는 오는 29일 창사 40주년을 앞두고 새 캐치프레이즈 ‘AI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힘, SK텔레콤’과 엠블럼을 공개했다. 이는 SKT의 40년 성과와 유산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컴퍼니로 도약해 대한민국 AI 역량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SKT의 의지와 비전을 담았다.

유영상 SKT 사장은 28일 “SKT가 이뤄온 40년의 성과는 도전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성공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SKT만의 DNA가 있어 가능



2023년 AI 피라미드 전략을 발표하는 SKT 유영상 사장. /SKT

했다”며 “이러한 도전과 성공의 DNA를 바탕으로 글로벌 AI 컴퍼니로 도약해 AI로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 또 한번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당시 한국이동통신)은 1984년 차량전화서비스를 국내에 처음 도입했다. 이후 1996년 CDMA 상용화

부터 2013년 LTE-A, 2019년 5G까지 이동통신 산업 발전을 이끌어 왔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삶은 편리하고 풍요로워졌으며, 스마트폰·장비·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등 SKT는 대한민국 이동통신과 ICT 발전 역사의 중심에 있다.



SKT 창사 40주년 엠블럼과 캐치프레이즈. /SKT

이처럼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 이동통신 발전을 이끌어온 SK텔레콤이 ‘글로벌 AI 컴퍼니’로 도약하는 데 총력을 다한다.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AI 서비스를 만들어 고객과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자강’과 AI얼라이언스 중심의 ‘협력’을 추진하는 AI피라미드 전략을 통해

산업과 생활 전 영역의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새로운 40년의 원년이 될 올해 SK텔레콤 글로벌 통신사 AI 연합인 GTAA를 통해 AI 피라미드 전략을 글로벌로 확장하고, AI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산업 부흥에 기여하는 새로운 사명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SKT는 도이치텔레콤, 이엔그룹, 싱텔 그룹,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통신사들이 함께 결성한 GTAA로 텔코 중심의 AI기술 공동 개발과 사업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SKT는 또 엔트로픽, 오픈AI 등과 협업 중인 텔코LLM을 중심으로 AI 추진 엔진을 확보하고, 유무선 네트워크를 AI 유무선 인프라로 진화시켜 글로벌 시장에서 AI 솔루션을 확산해 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사업의 AI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해 글로벌 무대에서 산업 전반의 AIX를 이끌어 나간다는 목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롤스로이스, 세상에 단 두대뿐인 ‘20주년 한정판’ 공개

블랙 배지 고스트 청담 에디션 선봬
“젊어진 韓 고객위한 혁신적 제품”
청담을 위해 英 굿우드서 수작업

롤스로이스모터카가 국내 청담 쇼룸 개관 20주년을 맞아 쇼룸 리뉴얼과 함께 한국 고객을 위한 세상에 단 두대뿐인 ‘블랙 배지 고스트 청담 에디션’을 공개했다.

롤스로이스모터카는 2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롤스로이스 청담 쇼룸에서 ‘블랙 배지 고스트 청담 에디션’ 공개 행사를 열었다. 롤스로이스모터카는 지난 2003년 코오롱 모터스와 공식 딜러십 계약을 맺고 ‘롤스로이스모터카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2004년 서울 청담동에 첫 전시장을 열고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

2004년 한 자리 수로 시작한 롤스로이스의 연간 국내 판매량은 매해 경신을 거듭해 2018년 처음으로 100대를 돌파했고, 2023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276대를 판매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한국은 롤스로이스에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 성장세를 보인 국가이자 중요한 시장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브랜드가 장기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롤스로이스모터카가 새롭게 오픈한 청담 쇼룸 전경. /SKT

비스포크서비스 또한 국내에서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롤스로이스 블랙 배지 고스트 청담 에디션은 국내 1호 전시장의 역동성에 영감을 얻은 한정판 모델이다. 청담 쇼룸 새단장 오픈 시기에 맞춰 제작을 완료했다.

아이린 니케인 롤스로이스모터카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괄은 “한국 고객층이 젊어진 만큼 밝고 혁신적인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1년 동안 준비해 내놓는 만큼 젊은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에 공개된 블랙 배지 고스트 청



롤스로이스모터카가 새롭게 오픈한 청담 쇼룸에서 개관 20주년 기념 한정판 모델인 블랙 배지 고스트 청담 에디션 라인 그림을 공개했다. /SKT

담 에디션은 강렬한 색 대비를 통해 역동성과 활기를 표현했다. 각각의 차량은 ‘라임 그린’과 ‘갈릴레오 블루’를 블랙 컬러를 조합해 투톤으로 디자인됐다. 대담하고 화려한 외관이 럭셔리 트렌드인 청담에서부터 영감을 얻었다는 설명이다.

선명한 대비를 이루는 색 조합은 실내로도 이어진다. 블랙 및 스페셜 컬러가 혼합된 비스포크 실내 가죽이 적용됐으며, 스티어링 휠, 양털 매트, 헤드라이너 및 필러 트림 등은 모두 어두운 블랙으로 마감됐다.

검은 내부 공간의 분위기와 대조적으

로 헤드레스트 자수와 바느질, 시트 테두리를 두른 파이핑, 도어 포켓, 시트 일부 및 센터페시아 하단에 포인트 컬러를 반영해 활력 있는 느낌을 줬다.

차량 문을 열면 불이 늘어오는 트레드 플레이트에는 ‘청담을 위해 영국 굿우드에서 수작업으로 제작(Handbuilt in Goodwood, England for CHEON GDAM)’했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엔진룸에는 6.75L 트윈 터보 V12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600마력, 최대토크 91.8kg·m의 강력한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 특히 ‘로우’ 버튼을 누르면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았을 때 기어 변

속 속도가 50% 더 빨라져 강력하면서도 쾌적한 가속능력을 제공한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청담 전시장은 비스포크(맞춤제작) 서비스에 집중했다. 전시장 면적은 약 495㎡(150평)에서 694㎡(210평)로 확장됐다. 동시에 비스포크 제작을 위한 특별 공간 ‘아틀리에’가 새로 생겼다.

아틀리에에는 영감을 주는 다양한 공예품과 진귀한 예술품들로 장식돼 있다. 목재 비니어, 가죽, 자수, 실, 양털 및 직물 샘플 등 차량 내외관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전시돼 있다.

전철원 롤스로이스모터카 서울 대표는 “롤스로이스가 제공하는 창의성과 장인정신을 고객들이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기반으로 이번 새 단장을 진행했다”며 “고객이 이 공간을 통해 꿈과 비전을 실현하고 자신만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차량에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롤스로이스모터카는 지난 2016년 9월에는 부산에 국내 두 번째 전시장을 오픈한 바 있으며 현재 청담 쇼룸, 판교 라운지, 부산 전시장 등 총 3개의 전시장을 운영 중이다. /양성운 기자 ysw@

LGU+, 도시가스 배관 AI로 진단한다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를 통해 도시가스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앞장선다.

LG유플러스는 에스코와 AI·빅데이터 기반의 도시가스배관 진단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업 현장 DX(디지털전환) 솔루션 개발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용산구 LG유플러스 사옥에

서 열린 업무 협약식은 박성용 LG유플러스 기업사업그룹장, 이재환 에스코 안전기술부문장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에스코는 서울 및 경기도심 지역 약 3,500km의 배관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LG유플러스와 IoT(사물인터넷) 원격모니터링 기술 협업을 이어

오고 있는 주요 파트너사다.

현재 도시가스 안전 관리는 배관에 일정 수준의 전류를 흘려 부식을 방지하는 ‘전기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도심 지역에 특화된 배관 진단용 신규 IoT(사물인터넷) 디바이스 개발에 협력하고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 도시가스 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제 솔루션과 데이터분석 시스템을 공동 구축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LG CNS, 인니 디지털전환 사업 강화

LG CNS가 인도네시아 시나르마스 그룹과 함께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사업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LG CNS가 27일 인도네시아 시나르마스와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LG CNS 현신균 대표, 클라우드사업부장 김태훈 전무, 금융·공공사업부장 최문근 전무와 시나르마

스 프랭키 우스만 위자야 회장과 빌 쉐상임고문, 에스엠플러스 헬스 수인다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에 합작법인(JV)을 설립한다. 합작법인은 인도네시아 기업, 공공을 대상으로 ▲데이터센터 컨설팅·구축·운영 ▲클라우드 전환 등 사업을 추진한다. /김서현 기자 seoh@



www.newsis.com

뉴스시스 공감/연/론
NEWSIS

뉴스시스는 대한민국 뉴스의 허브(Hub)입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 주요신문과 포털·인터넷 매체 등 수많은 고객사가 뉴스시스와 손을 잡고 뉴스시스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스시스가 전국 취재망을 통해 24시간 생산한 뉴스는 신문·잡지·인터넷 매체부터 정부기관 및 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뉴스시스는 하루 평균 3000여 개 기사와 사진을 제공합니다



출고기사. 1500여개



사진기사. 1500여개

뉴스시스는 젊습니다

생각이 젊고 행동이 젊은 뉴스시스!

시장독점에 대해 설립된 뉴스시스는 좀 더 능동적, 좀 더 적극적, 좀 더 공격적으로 세상을 바꿔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이사과 임직원들이 창립 68주년을 기념해 최초의 본점이 위치한 명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양증권

“韓 가장 튼튼하고 건강한 증권사 될 것”

한양증권, 창립 68주년 기념

한양증권이 창립 68주년을 맞이했다.

한양증권은 27일 창립 68주년을 맞아 임재택 대표이사과 임직원 25명과 함께 최초의 본점 등을 거친 명동에서 이를 기념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역사적 장소의 방문을 통해 설립자의 창업이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부심과 소속감을 드높이자는 취지다. 명동에는 한양증권이 처음 설립된 장소와 최초 본점 등이 위치해 있다.

1956년 한양증권은 대한민국 9호 증권사로 시장에 입성했다. 한국경제의 토대가 형성되기 이전이자, 앞날을 장담할 수 없던 시기였다. 한양증권의 뿌리에는 한양학원을 설립한 백남 김연준 박사의 교육보국 기치가 존재한다. 한양증권은 창립 이후 안정적인 성장

과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처음의 사명과 지배구조를 68년째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이날 임 대표는 “세월의 격을 넘어 한양증권이 명동에서 창업의 깃발을 높이 세울 때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낀다”며 “68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도전과 역경, 시련을 이겨낸 뒤에 얻어진 치열한 노력의 산물이자 영광의 트로피와도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민족, 사회의 가치를 드높이는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는 한양이 되자는 설립자님의 큰 뜻을 받들어 한양증권을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가장 튼튼하고 건강한 증권사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7일 오전에는 한양증권 여의도 본사에서 ‘창립 68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배재규 “반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한투운용 사장)

2024 ACE 반도체 기자간담회 “AI 시대 도래에 큰 도약기 앞둬”

“반도체 산업은 챗GPT 이후 인공지능(AI) 시대 도래에 따라 또 한번 큰 도약기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도 중요성이 크게 증가해 가격 등락과 관계 없이 반드시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한다.”

배재규 한국투자자산운용 사장은 2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소재 콘래드호텔에서 ‘2024 ACE 반도체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심층 논의와 투자 방향, 전략 등 반도체를 둘러싼 최근 이슈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비메모리·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반도체 장비

등 크게 4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배 사장은 “4개 섹터의 대표주인 삼성전자, 엔비디아, TSMC, ASML을 20%씩 편입했다”며 ‘글로벌반도체TOP4ETF’를 소개했다. 해당 상장지수펀드(ETF)는 글로벌 반도체 시총 5위부터 10위 종목을 합쳐 20%씩 담은 상품이다. 한투운용은 앞으로 반도체 ETF를 4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초연설을 맡은 칩워(Chip War)의 저자 크리스 밀러(Chris Miller) 교수도 “반도체 산업은 수년 간의 연구개발과 막대한 자본 투자를 통해 해자를 구축한 소수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진입 장벽이 높아질수록 상위 기업으로의 집중 구도가 더욱 공고화된다”며 “반도체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점 기업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키움증권, 기업가치 제고·주주환원 등 ‘박차’

3중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등 추진

키움증권은 여의도 키움증권본사에서 제2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임주성 키움증권 대표이사는 주총 인사말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방안의 선제적 실행’, ‘3중리스크관리 체계 구축’, ‘미래 성장 기반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임 대표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실

행해 당사 기업가치가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면서 “약속드린 주주환원율 30% 이상을 지키며, 향후 3년간 평균 ROE 15%를 목표로 업계 최고의 자본효율성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업, 리스크관리, 감사 부문의 3중 체계로 리스크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를 더욱 고도화 시키겠다”라며 “플랫폼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증권사, IPO 주관 순위경쟁 ‘지각변동’

하나·신한투자증권, 1분기 선두 도약

하나증권, 에이피알·포스뱅크 참여 1218억 공모총액 기록… 1위 차지

신한투자증권, 12위 → 3위 올라 NH투자증권 등 선두 재탈환 노려

올들어 기업공개(IPO) 주관 순위 경쟁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중하위권에 머물렀던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1분기 대어급 IPO를 주관하며 상위권으로 올라서는 등 증권사 간 순위바뀔 가능성이 거세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IPO 상장 주관사 공모총액은 약 5678억원이다. 지난해 1802억원의 공모총액으로 8위에 머물렀던 하나증권은 올 1분기에 에이피알(947억5000만원)과 포스뱅크(270억원)의 IPO에 각각 공동주관과 대표 주관사로 참여하면서 1218억원의 공모총액을 기록, 1위를 차지했다. 하나증권은 스펙 시장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사피엔반도체와 레이저유택의 스펙 소멸 합병을 통해 코스닥 입성을 도왔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1분기에 이같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전통 투자은행(IB) 부문에 주력한 결과”라며 “계속해서 대어급 기업들의 상장을 주관하며 대외 인지도를 높여 가고 있고, 스펙 합병의 경우에도 현재 3개 기업이 심사 중에 있어 업계 선두권을 지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간 공모총액 549억원으로 12위를 기록한 신한투자증권은 948억원을 달성하며 3위로 올라섰다. 신한투



하나증권 본사 전경. /하나증권

자증권도 에이피알 상장을 주관했다. 지난해 주관 실적 1위에 자리했던 NH투자증권은 HB인베스트먼트, 케이웨더, 케이엔알시스템, 오상헬스케어, 엔젤로보틱스 등을 주관, 1098억원의 공모총액으로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2위, 3위였던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은 1분기에 635억원과 600억원의 공모총액을 기록해 4, 5위로 밀렸다.

앞으로 1분기에 밀렸던 주요 증권사들이 선두권 재탈환을 노리고 있어 순위 변동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3조원대 몸값이 예상되는 HD현대마린솔루션의 공동 주관사로 참여하는 데다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 역시 조단위 기업 상장 주관에 나선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



신한투자증권 본사 전경. /신한투자증권

블리카의 상장 대표 주관사로 선정됐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상장 후 예상 시총이 12조~16조원에 육박해 IPO 최대어로 손꼽히고 있다. 이밖에도 미래에셋증권은 SSG닷컴과 올리브영의 대표 주관사로 IPO를 추진하고 있고, 한국투자증권은 롯데글로벌로지스의 대표 주관을 담당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상장 재도전을 선언한 시가총액 6조원대 규모 케이뱅크의 상장을 주관하는 한편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몸값이 최대 3조원까지 거론되고 있는 게임사 시프트업의 대표 주관을 맡았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올해도 부동산 PF시장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증권사들이 전통 IB 부문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IPO 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금감원 압박에 홍콩H지수 자율배상 움직임

금감원, 내주 감사의견서 발송 예정 銀, 이보다 한발 앞서 대책 마련 모습 신속 이행 시 제재 경감 발표 영향

은행들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자율배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배임 우려에도 시중은행들이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금융감독원의 압박이 주요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감사의견서를 받기 전임에도 자율 배상안을 논의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금감원이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가 적발된 판매사에 보낼 감사의견서는 다음 주 중 발송될 예정이지만, 은행권은 이보다 한발 앞서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시중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22일 이사회를 열고 제일 먼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손실 관련 자율배상을 결의했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판매 금액은 415억원 수준으로 은행권 판매사들 중 판매 금액이 가장 작다.

이어 하나은행도 27일 같은 사안에 대해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 배상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하나은행의 홍콩H지수 ELS 잔액은 약 2조3000억원이다. 이중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도래해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7500억원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외부 전문가 3인을 포함한 11인의 전문가로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를 구성해 투자자별 개별요소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해 배상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나머지 은행들도 속속 이사회를 열

고 자율 배상안 수용 여부 검토를 서두르고 있다. 28일에는 NH농협은행·SC제일은행이, 29일에는 신한은행이 은행별로 이사회를 열고 배상안 수용 여부를 논한다.

비공식 이사 간담회를 열었지만 자율 배상에 대한 최종 결의에는 이르지 못했던 KB국민은행도 2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자율 배상안을 확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 올해 상반기 전후에 만기가 돌아오는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판매한 ELS 계좌만 8만개가 넘고, 판매액도 약 5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아 자율 배상 결의의 여부가 주목되는 은행 중 하나다.

이 같은 은행권의 움직임은 신속한 자율 배상을 이행하는 은행에 대해 제재를 경감해줄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발표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불완전 판매를 한 은행들은 전체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홍콩H지수 ELS 관련 금융사가 자율 배상안을 시행하면 감경 사유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원 기자 zelkova@

위기의 카카오, 정신아號 출범... 조직개편 등 쇄신 속도

주총서 정신아 대표이사 공식선임 정 대표, 임직원 1000여명과 미팅 쇄신 방향·세부 실행방안 수립 미팅 회전문 인사·떡튀 논란 등 잡음 커 내부반발 거세... 구성원 설득 시급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 /카카오

카카오 정신아 호가 출범했다. 3개월 간의 내정자 꼬리표를 뗀 정신아 카카오 신입 대표는 내부 조직 쇄신과 책임 경영 강화, 인공지능(AI) 신기술 역량 확보 등을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로 설정하고 "사내 외의 기대와 주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루기 위해 쇄신 작업에 속도를 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쇄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 설득과 답보 상태인 기술 개발을 위한 자원 확보 등 다양한 과제가 산적한 만큼 정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가 28일 오전 제주 스페이스닷원 본사에서 제29기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했다. 주총 마무리 후 바로 개최된 이사회에서 정신아 대표를

차기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했다.

주총의장을 맡은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이사는 이날 1년7개월의 대표이사직을 마무리하고 새로 선임된 정 대표에 대해 "카카오 사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IT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경험을 활용해 카카오의 성장 규모에 맞는 시스템과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12월 차기 대표이사로 내정된 후 올초부터 김범수 창업자와 CA 협의회 공동의장 겸 전략위원회, 카

오 쇄신TF장을 맡았다. 그동안 1000명 이상의 임직원과 20여 차례 대면미팅을 진행하고 카카오의 쇄신 방향 및 세부 실행방안 수립에 매진했다. 인공지능(AI) 중심 신성장 동력 확보와 의사결정 구조 쇄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 대표가 이끌게 될 현 카카오는 현재 창업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주가조작 등 수많은 범죄로 투자 총괄대표가 구속되는 상황과 본사 압수 수색 등이 이어졌다.

카카오는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논란이 발생하며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가 구속됐고, 11월에는 김정호 브라이언 임팩트 이사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경영 실태를 폭로하면서 측근에 편중된 보상, 불투명한 업무 프로세스와 특정 부서의 독점적 업무 처리, 골프장 회원권 및 대외협력비 등 온갖 문제와 쇄신 과정에서 내부 저항까지 거론됐다.

테크기업으로써는 치명적인 기술역량에 대한 대내외적인 의문의 눈초리와 비판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경쟁사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와 클로바X로 생

성형 AI시대 성장 동력을 대대적으로 선보이는 동안 공개를 예고한 차세대 초거대언어모델(LLM) '코GPT 2.0'은 공개를 미루며 오리무중이다.

정 대표는 조직 쇄신을 위해 성장한 사업 규모에 걸맞은 시스템 구축, 테크 기업다운 빠르고 명확한 의사결정을 위해 조직 개편도 단행할 예정이다. 의사결정 단계를 간소화하고 조직 및 직책 구조를 단순화하여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사업 및 목적 별로 파편화되어 있던 기술 역량 또한 결집시켜, 기술부채를 해결하고 테크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고자 한다. 아울러, 사업 성격에 따른 유연한 조직 구축 및 운영으로 업무 중복과 사일로 현상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카카오가 보유한 플랫폼 비즈니스 역량을 극대화하고 이용자에게 최상의 고객 경험을 지속 제공하려는 취지다.

AI 기술 및 서비스 집중 강화를 위한 AI 통합 조직도 꾸린다. 해당 조직 산하에는 다양한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를 실험하는 다수의 조직을 만들어, 빠른 실행과 R&D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그러나 정 대표의 혁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회전문 인사 논란도 나오고 있어 정 대표는 내부 구성원 설득부터 시급한 상태다. 전날 27일 금융감독원이 류공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했음에도 연임을 확정했고, 수십억원 규모의 스톡옵션을 '떡튀'했다는 논란을 촉발시킨 정규돈 전 카카오뱅크 CTO도 카카오 CTO로 내정하면서 내부 반발이 거세다.

이날 카카오 공동체 노동조합인 크루 유니언(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은 주총 마무리 후 쇄신 방향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주총회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노조는 임원 선임에 대한 검증절차를 공식화하고 견제할 수 있는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임원 추천위원회의 대상을 미등기임원까지 확대하고 임원의 변경, 선임 사유에 대해 조직 내에 명확하게 공유해야 한다"며 "내부 통제 및 감사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KT "통신에 IT·AI 더해 AICT기업 혁신"

김영섭 대표 취임 후 첫 정기주총 "인위적 대규모 구조조정은 없다 다만, 합리적 구조조정 진행할 것" 배당금 1960원, 내달 26일 지급



28일 KT 김영섭 대표가 제42기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KT

KT가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통신 기반에 인공지능(AI)을 더한 'AICT 회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기배당도입하고 주주환원 정책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김영섭 KT대표는 취임후 처음 갖는 제42기 정기 주총에서 "혁신 없는 회사는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회사는 많은 결실을 절대로 맺을 수가 없다"며 "KT가 가지고 있는 통신 기반에 정보기술(IT)과 AI를 더한 AICT 기업으로 빠르게 혁신해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경영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선진화된 지배구조를 구축했다"며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견고한 실적으로 KT의 저력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이 시대는 AI로 통합한다고 할 수 있는 IT가 산업뿐만 아니라

리 일상생활에까지도 빠르게 모든 것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며 AICT 기업으로서의 성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주주들 사이에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KT 직원이라고 밝힌 주주는 "조만간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위기에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하자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라운드미팅에서도 인위적인 대규모 구조조정은 없다. 다만, 조정 없이 혁신이 되지 않는다

고 생각하는 만큼 합리적인 구조조정은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주주총회에서는 ▲제42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상정됐던 총 3개 의안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KT는 정관 일부 변경 승인에 따라 올해부터 분기배당을 도입하고, 이사회에서 결산 배당기준일을 결의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다.

주당 배당금은 1960원으로 확정했으며, 오는 4월26일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KT는 지난 3월25일 완료한 271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포함해 총 5101억원을 주주에게 환원한다. 이번 배당 절차 개선으로 투자자들은 KT의 배당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된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주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에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보통신 기술(ICT)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KT에 많은 기대와 응원을 부탁 올린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넥슨코리아, 강대현·김정욱 공동대표 선임

기존 이정현 대표, 日법인 대표로



넥슨코리아 김정욱(왼쪽)·강대현 공동대표 /넥슨

넥슨코리아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강대현·김정욱 선임 공동 대표이사를 공식 선임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이정현 대표는 같은 날 넥슨 일본법인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넥슨은 약 14년 만에 공동 대표 체제로 전환하며 넥슨 고유의 역량 강화와 사내 문화 개편을 필두로 다음 30년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한다.

강대현 선임 공동 대표는 2004년 넥슨에 입사해 '크레이지 아케이드',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등 넥슨의 대표 타이틀들의 개발을 맡아 왔으며, 2017년부터는 넥슨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연구 조직인 인텔리전스랩스를 이끌었다.

2013년 넥슨에 합류한 김정욱 선임 공동 대표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넥슨의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해 왔으며 2020년부터 CCO(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를 맡아 넥슨의 경영지원 및 커뮤니케이션 부문 전반을 이끌었다. /최빛나 기자 vitna@

1인 창조기업 창업자, 2명 중 1명 중소기업 출신

중기부, 창업준비 15% 프리랜서 9% 평균업력 약 12년에 매출액 평균 3억

1인 창조기업 창업자 2명 중 1명은 중소기업 출신으로 나타났다.

1인 창조기업 숫자는 2021년 기준으로 98만 여개에 육박했다. 평균 업력은 약 12년, 매출액은 평균 3억원 가량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

과를 발표했다. 기준은 2021년이다.

결과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 대표자의 창업 전 주요 근무 경력은 '중소기업 근무'가 49.6%로 가장 많았다. '창업준비'와 '프리랜서'도 각각 15.0%, 9.3%를 차지했다. 전직 업종과 현업 연관성 정도는 '긍정의견'이 59.3%로, 기존 경력과의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1인 창조기업 숫자는 총 98만7812개로 전년대비 7.7% 증가했

다. 이는 전체 창업기업 수 증가율(5.8%) 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 28.0%(27만6000개) ▲서울 24%(23만7000개) ▲부산 6.2%(6만1000개)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이 57.2%로 56만5000개, 비수도권이 42.8%로 42만2000개를 차지했다.

매출액 평균은 2억9800만원으로 1인 창조기업이 전체 창업기업 2억4400만원 보다 높았다. 1인 창조기업 매출액 평균은 2019년 2억4400만원, 2020년 2억7700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기록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엔씨소프트-구글 클라우드, 글로벌 협업

AI·클라우드 및 생산성 향상 논의

엔씨소프트가 구글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글로벌 협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에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마크 로메이어 구글 클라우드 AI 및 머신러닝 인프라 부문 부사장 등 양사간 협업 분야 대표 임원진이 만났다.

양사는 클라우드와 AI 분야의 글로벌 협업 영역 확대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했고, AI, 클라우드 및 생산성에 대한 중장기 협업 모델을 수립했다. /최빛나 기자

구체적으로 ▲새로운 게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게임 개발 과정 전반에 AI 기술 적용 ▲게임 개발 및 운영을 위한 데이터 분석, 라이브 서비스 운영 최적화에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게임 생태계 구축을 위한 플랫폼 개발 ▲전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미니AI 포 구글 워크스페이스' 도입 등의 협력을 추진한다. 양사는 글로벌 협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협력을 발판 삼아 제미니AI, 젤마 등이 포함된 구글 클라우드의 '버텍스 AI'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언어모델 '바르코(VARCO)'를 한층 더 고도화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촌소멸, 창업·주택·자금 지원해 위기 대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 전략
시·군, 농산업 혁신벨트 구축
국민의 4도3촌 라이프 실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28일 농촌소멸 문제와 관련해 위기에 잘 대처할 시 도시, 농촌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전회위박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냈다. 또 저출산 문제 타개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설명회를 열고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New Ruralism 2024)을 통해 농촌이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그간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의 큰 위협요인이지만 농촌소멸에 잘 대응한다면 도시문제,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농촌소멸 대응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농촌’을 모토로 3대 공간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째, 청년층과 혁신가, 기업가, 농업인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이다. 둘째, 농촌공간 테스트베드와 등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이다. 셋째, 주거·산업·서비스 등이 집적되고 도시와 농촌이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이다.

정부는 청년들의 농업 및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 농업 등 농업생산 뿐만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이 28일 세종 여진동 정부청사에서 언론설명회를 갖고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농식품부

아니라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 및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하는 경우, 마을 공유자원 등을 활용해 농촌공간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한다.

또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Agribiz+)을 육성해 일자리와 산업기반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시·군 단위 ‘농산업 혁신벨트’를 구축해 스마트팜, 융복합 기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한다. 농촌소멸 고위험지역에는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제 도입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기업과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경우 입지 규제완화 등 농촌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 창업

가 등의 다양한 농촌 입지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3헥타르(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전국 2만1000ha 추정)하고, 사유지 산지 중에서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사용제한 지역(3600ha 추정)을 해제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전용 허가기준 범위도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의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체류·정주 등의 인프라를 혁신한다.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도 조성한다.

의료서비스와 관련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및 보건소 등을 통한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촌 돌봄마을 조성도 확대 추진한다.

/세종=김연수 기자 kys@metroseoul.co.kr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 8개월째 내리막

고용부,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이 8개월째 내리막을 기록했다.

28일 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 사업체 노동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959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1983만1000명)보다 23만2000명(+1.2%) 늘었다.

사업체 종사자는 2021년 12월 전년 동기 대비 108만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증가폭이 감소 추세다. 2023년 6월 41만7000명까지 감쪽 상승했으나, 8개월 연속 증가폭이 줄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11만7000명(+0.7%), 임시일용근로자는 9만명(+4.9%) 증가했다.

지역별로 경기(+10만1000명), 경남(+2만6000명) 등 대부분 지역에서 종사자가 증가했다. 종사자 수 증감률은 세종(+5.9%)이 가장 높고, 이어 전남(+2.9%), 충남(+2.6%) 순이다.

분야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4.3%(+9.7만명) 증가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3%, +3.0만명), 도매 및 소매업(0.7%, +1.6만명) 순이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0.5%, -6000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0.8%, -1000명) 순으로 감소했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약19%)은 1만4000명 증가했다.

2월 중 입직자는 89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4000명(-5.7%), 이직자는 88만4000명으로 3만6000명(-3.9%) 각각 감소했다.

자발적 이직은 29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5000명(-13.1%) 감소한 반면, 비자발적 이직은 48만명으로 1만3000명(+2.7%) 증가했다.

채용이 증가한 분야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5000명), 운수 및 창고업(+4000명) 순, 감소한 분야는 제조업(-1만8000명), 건설업(-1만1000명) 순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올 인천에 수소버스 505대 보급 계획

환경부, 충전시설 구축 등 방안 논의

정부가 올해 전국에 보급할 예정인 수소버스의 30%가량이 인천에 배당된다. 환경부와 인천시는 29일 인천광역시 의회에서 지역 버스기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수소버스 전환 이행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인천시는 올해 환경부의 수소버스 보급 목표인 1720대 중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대 물량인 505대(29.4%)를 보급할 계획이다. 시는 액화수소플랜트와 수소충전소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 등 수소버스 생태계 선도도시를 겨냥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수소버스 보급계획 및 수소버스 충전 기반 시설(인프라) 현황 등을 공유했다. 또 안정적인 수소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운수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인천광역시에서 수소버스 전환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며 “수소버스 전환 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소버스 정비와 충전 시설이 뒷받침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소버스 제작사-수소충전소 구축·설비사, 수소버스 운수사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수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 57% 중대재해 대응 ‘취약’

고용부, ‘산업안전 대진단’ 계획 발표
내달 말까지 자가진단 45만건 목표

5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이 절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준비가 부족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스스로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주 등이 사업장 안전수준에 대한 핵심 항목 10개에 대해 자가진단해 진단 결과는 빨강, 노랑, 초록으로 제시하고, 진단결과가 빨강, 노랑으로 나오면 컨설팅·기술지도·재정지원을 해준다.

지금까지 자가진단을 완료한 21만건 중 지원이 필요한 빨강, 노랑 진단결과를 받은 비율은 57.1%, 초록 진단을 받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장은



6일 서울 중구 신당누리센터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42.9%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준비가 미흡한 업종은 제조업, 기타업종, 건설업 순이었고,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이들의 지원신청 사업은 기술지도, 교육, 컨설팅, 재정지원 순으로 많았고, 세부사업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수요가 가장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후 사망자가 발생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33개 중 6개소는 이번 대진단을 통해 정부지원을 신청했다.

고용부는 자가진단 참여 확대를 위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4월말까지 자가진단 45만건, 정부지원신청 사업장 30만개소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다.

고용부 관계자는 “초기에는 인지도 부족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집중 현장 홍보 등을 통해 3월부터 자가진단 및 정부지원 신청 사업장 증가추세가 뚜렷해졌다”며 “현장의견을 반영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과 사업 품질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제작년 고금리·규제 여파에 ‘빚’ 첫 감소

통계청, ‘임금근로자 부채’ 발표

제작년 기준 직장인들 평균 빚이 역대 처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은행 금리가 크게 뛴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당시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신규대출이 급감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2년 일차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대출은 5115만 원으로 전년(5202만 원) 대비 97만 원(1.7%) 감소했다. 임금근로자의 평균대출은 개인이시중은행 또는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잔액의 합을 임금근로자 수로 나눈

값을 가리킨다.

임금근로자 평균대출은 매해 2017년 12월(3974만 원)에서 2019년(4408만 원) 크게 증가한 뒤 2021년에 5000만 원을 넘어섰다. 이후 2022년 기준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역대 첫 감소를 기록하게 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금리가 2017년부터 1%대였는데 2022년도 하반기에 많이 오르면서 대출이 둔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2021년 11월 1.0%에서 2022년 11월에는 3.25%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규제를 조이면서 신규대출이 억제된 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수 기자

CARM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2024.04.26(금)

13:00~17:00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연사-



Robert Coppes
University Medical
Center Groningen



Ryuichi Okamoto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
(TMDU)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임승원
현 애니젠 고문
전 한국IF협의회 상근부회장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최미혜
한국거래소
차장



정형구
미래어드생명과학
이사

■ 행사개요

- 행사명: CARM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 일 시: 2024년 4월26일(금) 13:00~17:00
- 장 소: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1층)
- 주 최: (사)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 후 원: 충청북도
- 등 록: 운영사무국 M&C기획 02-721-9818 선착순, 사전접수만 입장 가능

포럼에 참가한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Registration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2:30~13:30	사전등록 (13:00~13:30 MP Tea 타임)
개회 및 축사	13:30~13:50	이득주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섹션1	13:50~15:3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연구 및 현황 강연1: Robert Coppes 교수 "Organoids for Post-Radiotherapy Regeneration of Salivary Glands, the RESTART study" 강연2: Ryuichi Okamoto 교수 "Clinical application of patient-derived organoids" 강연3: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의 현황과 전망" 강연4: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민간전문화능 줄기세포 유래 오가노이드 원천 및 활용 기술 개발"
브레이크타임	15:30~15:45	커피 브레이크 및 자유네트워킹
섹션2	15:45~17:0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시장과 전망 정형구 미래어드생명과학 이사 "재생치료제 동향 및 오가노이드의 역할" 임승원 전 한국IF협의회 상근부회장 "바이오벤처기업의 IPO 전략" 최미혜 한국거래소 차장 "찾아가는 기술특례 상장 설명"
폐회	17:00	정부 관계 부처 및 금융기관 전문가

2025년 수능, 어떻게 바뀌나

사교육 유사문항 출제 방지... 이의 심사대상에도 추가

킬러문항 배제·EBS 연계율 50% 연계 교재 그림 등 활용 제한도 높여 출제본부 꾸러 문제 유사성 점검 6월 모의평가부터 심사대상 포함 출제인력 검증·선정 등 체계화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과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정부 방침대로 '킬러문항'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한 채 출제된다. EBS 연계율은 50% 수준으로 유지된다. 출제본부는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 등을 활용해 수험생들의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수능과 사교육 간 유사 문항 출제를 방지하고 수능 출제자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서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8일 '2025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과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능·사교육 '유사성 검증' 출제진 합숙 중에도 이뤄진다

평가원은 올해도 수능을 적정 난이도로 출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와 동일하게 출제과정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기로 했다.

한국교육방송(EBS)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 간 연계율은 50% 수준을 유지한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

일 방침이다. 특히 교육부는 올해 수능부터 유사성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023학년도 수능에서 '판박이' 논란을 빚었던 영어 23번과 같은 문항이 나오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출제본부가 꾸러진 뒤 사교육 모의고사·문제지와 유사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출제 예정인 수능 문항과 사교육 모의고사 간

유사성은 현직교사들로 구성된 수능출제점검위원회가 맡게 된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에 나오면서 9월 모의평가 때부터 문항 점검을 해왔다.

◆'사교육 연관성'도 이의 심사 대상에 추가

수능 이의 심사 절차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출제 오류 등에 대해서만 이의 신청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사교육과 연관성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6월 모의평가부터는 문항의 사교육 연관성도 이의 심사기준에 포함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출제인력 풀에서 즉시 배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인력 검증과 선정, 관리도 체계화하기로 했다. 출제인력은 교육청과 대학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전 검증한 뒤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최종 출제위원은 이 인력풀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선정한다. 사교육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접

수도 강화해 출제자의 출제 경력 노출 이력 등 사교육 유착 내용 적발 시 출제인력 풀에서 배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업계 사이의 카르텔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변별력을 확보하면서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공정수능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수능도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국어·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시행된다. 국어영역에서 독서, 문학은 공통과목으로 치러지며, 이 외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골라 응시해야 한다.

수학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인 수학 I·II와 함께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해 응시하면 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영재학교 졸업생, 의약학계열 62명 진학

올해 전국 8곳서 110명 지원 지난해 164명 지원, 83명 진학 교육비·장학금 4.2억 환수 영향

올해 전국 8개 영재학교에서 의약학계열을 지원한 학생 110명 중 62명이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학교에서 의대로 진학한 학생이 작년보다 줄어든 가운데,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서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대 진학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8개 영재학교 졸업생 중 의약학계열에 지원한 학생은 110명으로, 이 중 62명이 의약학계열에 진학했다. 진학자 62명 중 수시 54명, 정시 8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164명이 지원해 83명이

진학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줄어든 수치다.

그간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영재학교에서 의약학계열로 진학하는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영재학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가 영재학교·과학교 출신이 의약계열에 진학할 경우 교육비·장학금을 반납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밖 교육·연구 활동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국 8개 영재학교가 의약학계열 지원·진학자에게 환수한 교육비는 4억2130만원(66명)이었다. 입학자는 62명이지만 '지원'만으로도 환수하는 고교가 있어 환수 대상은 66명이었다.

의약학계열 지원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과학교등학교로 학생 총 35명이 지

원해 2억5243만650원의 교육비를 반납했다. 경기과학교등학교는 18명으로부터 8100만원을 환수했다.

일각에서는 장학금과 교육비를 환수하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공계특성화 대학에 진학한 뒤 다시 의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특히 정부 '의대 증원'에 따라 '의대 쏠림'도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득구 의원은 "영재학교에서 의약학계열로 진학 시 교육비나 장학금 환수 조치에 따라 의약계열 진학 학생들이 다소 줄었으나, 최근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약계열 진학감소 추세가 꺾일 우려가 있다"라며 "데이터를 통해 이러한 현상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우리 사회가 이공계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

서울시교육청, 온라인학교 과목개설 신청 받아

서울 통합온라인학교, 내년 3월 개교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신청 접수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3월 개교 예정인 서울 통합온라인학교의 과목 개설 신청을 4월 1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온라인학교는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생길 수 있는 지역별·학교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 과목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설립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과목 개설 신청을 바탕으로 서울온라인학교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과목 개설 신청은 서울 관내 일반고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학교는 주문형 과목과 개방형 과목을 서울시교육청으로 신청하며, 학생들은 학생 개설형 과목을 콜라캠퍼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콜라캠퍼스는 서울시교육청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지원시스템이다. /이현진 기자



인천시, 올해 일자리 15.4만개 창출 목표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

인천시가 민선 8기 일자리 60만 개 창출 공약 실행을 위해, 올해 15만 4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한다.

인천광역시청은 청년에서 노인까지 전 계층을 포함하는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 확보를 통한 고용성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4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일자리공시제 목표 고용률(15~64세 기준) 68.6%, 15만 4000개 일

자리 창출을 목표로 세웠다.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으로는 지난해 대비 388억 원 늘어난 총 1조 3595억원(민자제외)을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12월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6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1%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2023년에는 연차별 목표(146,079개) 대비 1만1985개 많은 15만8064개를 달성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대상 평가에서 일자리공시제부문 대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최근 개선되고 있는 여러 고용지표와 지역내총생산(GRDP) 100조 원 기록, 인구 300만명 돌파 등 대한민국 제2 경제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선8기 종합계획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올해 일자리 대책은 시민이 체감하는 고용의 질적 개선과 양적 성장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 ▲지역주도 일자리 ▲청년의 꿈 도전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5대 전략과 12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대구·경북 의료분야 中企 글로벌화 지원

중진공-케이메디허브와 맞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대구경북 지역 의료분야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중진공은 대구 동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케이메디허브)과 의료산업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 내용에는 ▲의료산업 창업활성화 및 혁신성장 기반구축 ▲의료산업 유망기업에 대한 밸류업 지원 ▲기업별 맞춤형 구인·구직 매칭, 연수 및 우수인력 육성 등이 두루 포함돼 있다.

특히 두 기관은 국내 유망 바이오·의료기기 기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두바이, 시카고, 워싱턴DC 등 의료산업 거점에 위치한 중진공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연계해 '한국형 메디콘'의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오른쪽)이 28일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양진영 대경첨단의료산업재단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료산업 유니콘 기업) 기업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강석진 이사장은 협약 관계자와 케이메디허브 의료기기센터 방문해 첨단의료복합기술과 인프라를 살펴보고, 의료기기 제조기업 등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한 연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승호 기자 bada@

KT&G ‘에세 체인지’ 방경만 사장 선임

“T·O·P 추진, 글로벌 톱티어 도약”

〈신뢰제고·근원적 경쟁력 확보·전문성 강화〉

제37기 정기주총 개최

지난 1998년 공채로 입사 후 브랜드시장·사업부문장 등 거쳐 진출국가수 40곳→100여곳 확대 해외 관련사업 매출 1조시대 열어



방경만 KT&G 사장 /KT&G

KT&G가 28일 대전 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 제37기 정기주총회에서 방경만 대표이사 사장이 선임됐다.

방경만 KT&G 선임 사장은 주주청구에 따라 소수 주주권 보호를 위해 대표이사 사장 선임 안건을 다른 이사 선임 안건과 통합해 진행한 집중투표에서 주주들의 압도적 지지로 최다득표를 기록하며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됐다.

방 사장은 “회사를 위해 CEO로서 헌신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 주주들과 국내외 사업 현장에서 땀 흘리고 계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KT&G는 3대 핵심사업을 성장 발판으로 삼아 ‘글로벌 톱티어(Global Top-tier)’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며, 그 성장의 과실을 공유함으로써 회사 가치를 높이고 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더욱 단단한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톱티어’로의 도약을 위한 차기 경영전략으로 ‘T·O·P(Trust, Origin, Professional)’를 제시했다.

점유율 1위 브랜드인 ‘에세 체인지’를 출시해 국내 시장에서의 압도적 경쟁력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글로벌본부장 재임 시에는 해외시장별 맞춤형 브랜드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진출 국가수를 40여 개에서 100여 개로 크게 확대하는 등 해외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해 사상 최초로 해외 관련 사업 매출 1조원 시대를 열기도 했다.

또, 총괄부문장으로서 해외 관련의 직접사업 확대, 국내외의 NGP(전자담배)사업 성장, 해외 건강기능식품의 현지 완결형 밸류체인 구축을 진두지휘하며 3대 핵심사업(해외 관련, NGP, 건강기능식품) 중심의 중장기 성장전략 추진을 주도해왔다. 이에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KT&G의 ‘글로벌 톱티어’ 도약을 이끌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최고 수준의 주주환원정책 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기업가치와 주주 가치를 동반 성장시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주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었다.

한편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손동환 사외이사 선임 안건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곽상욱 사외이사 선임 안건도 가결됐다. KT&G 측은 “새롭게 구성되는 차기 이사회를 중심으로 회사의 성장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브랜드실장 재임 시 국내시장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동원그룹 김남정 부회장, 회장으로 승진

“김재철 명예회장 업적·철학 계승”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사진)이 회장에 오른다. 동원그룹은 28일 서울시 서초구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김남정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동원그룹 회장직은 지난 2019년 김재철 명예회장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경영 일선에서 은퇴한 뒤 5년간 공석이었다.

김남정 선임 회장은 “지난 50년간 동원그룹을 이끌어온 김재철 명예회장의 업적과 경영 철학을 계승하고 과감한 투자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고객뿐 아니라 임직원, 관계사, 주



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선임 회장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동원산업 영업사원으로 입사해 동원 F&B 마케팅전략팀장, 동원산업 경영지원실장, 동원시스템즈 경영지원실장, 미국 스타키스트 최고운영책임자(COO), 동원엔터프라이즈(現 동원산업 지주 부문) 부사장 등 계열사를 두루 거치며 경영 역량을 쌓았다. /신원선 기자

교촌에프앤비, 신임 대표이사에 송종화

주총서 이사선임 등 6개 안건 통과

교촌에프앤비가 송종화 부회장(사진)을 신임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했다.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28일 경상북도 칠곡군 교촌에프앤비 본사에서 제25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송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비롯한 제25기(2023년 1월1일~12월31일)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승인, 이사 선임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



인 등 6개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교촌에프앤비는 이날 송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과 아울러 그를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했다.

송종화 신임 대표이사 부회장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교촌에프앤비 총괄상무 및 사장으로 재직했으며 지난해 9월 부회장으로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신원선 기자

교촌, 100년 양조법 ‘은하수 막걸리’ 인기

영양백년 양조장서 한정수량 생산 물·쌀·누룩 사용 ‘감향주’ 현대화

6도, 청량감에 기름진 음식과 조화 8도, 걸쭉하고 발효 후 새콤한 맛



은하수 막걸리와 메밀단편 반상 메뉴. /교촌에프앤비

상생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의 관계사 ‘발효공방 1991’에서 만든 전통주 ‘은하수 막걸리’가 인기다.

은하수 막걸리는 100년의 역사와 함께 경복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영양백년 양조장에서 한정 수량 생산으로 제조된다. 은하수는 경상북도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영양군에 위치한 100년 전통의 양조장에서 만들어진 ‘감향주(甘香酒)’를 현대화한 전통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고스란히 담고자 물, 쌀, 누룩 외에 어떠한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감향주는 1670년경 장계향 선생이 집필한 ‘음식디미방(飲食知味方·음식지미방)’에 소개된 바 있다. 찹쌀과 누룩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물을 거의 넣지 않아 수저로 떠먹는 되직한 막걸리로 쌀이 귀하던 시절 양반들만 먹을 수 있던 고급 막걸리였다.

발효공방 1991은 장계향 선생의 후손인 13대 종부 조귀분 명사로부터 한국 고유의 전통주인 감향주 양조법을 직접 전수 받아 현대화해 은하수 막걸리를 선보였다. 옛 것을 익혀 새로운 것

을 만드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태어났다.

27일 발효공방 1991에 따르면 ‘은하수 6도 막걸리’는 깔끔한 청량감으로 기름진 음식과 조화롭게 어울리며, 고형분이 적어 텁텁하지 않고 목넘김이 부드러운 막걸리로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천연의 단맛을 자랑한다.

튀지 않는 산미가 식욕을 돋우며, 달콤함과 새콤함이 균형을 이뤄 어떠한 음식과 매칭해도 어색하지 않다. 특히 빈대떡, 고추튀김 등 전류와, 매운 볶음류 중 고추장 닭불고기 등의 안주와 잘 어울린다.

‘은하수 8도 막걸리’는 원재료 함량이 높고 걸쭉한 막걸리다. 고품질 영

양쌀의 달콤한 맛과 금강밀의 고소한 향, 발효 후 새콤한 맛의 조화가 탁월하다. 30일 자연 발효를 통한 은은한 꽃향기와 과일향이 풍부해 안주 없이 음미해도 좋다. 특히 생선전, 배추전 등 간이 진하지 않은 음식과 잘 어울리며, 막걸리 자체의 목직함을 즐기다가 기호에 따라 얼음, 탄산수, 사이다 등을 섞어 마시면 또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현재 은하수 막걸리는 경상북도 영양 지역 내 로컬푸드매장 등 현지 매장을 중심으로 판매 중이며, 서울 지역에는 이태원 ‘교촌필방’과 여의도 ‘메밀단편’, 광장시장의 명물 ‘박가네 빈대떡’에서도 한정 판매 중이다. /신원선 기자

LG생건, 항노화 인자 ‘NAD+’ 성과 발표

중 상하이서 LG R&D 데이 개최

LG생활건강이 ‘피부 노화 완화’ 인자로 각광받는 NAD+를 화장품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7일 중국 상하이 과학기술회당에서 ‘안티에이징의 미래, NAD+’를 주제로 제1회 LG R&D 데이를 개최했다. LG생활건강이 화장품 성분을 주제로 연구성과 발표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AD+는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발견되는 인자로, 노화로 인해 무너지는 균형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부에서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LG생활건강은 NAD+의 전구체인 ‘NMN’을 시작으로 약 10년

에 걸친 연구를 통해 NAD+의 피부 투과력과 전달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NAD 파워24’를 개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국 천연물 활성 성분 및 생리 활성 효능 평가 권위자로 알려진 중국 복단대학교 천연약물학과 정지홍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정 교수는 “다양한 연구에서 NAD+ 수치 증가는 ‘항노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어 있다”면서 “학계에서는 NAD+ 증진이 항노화에 중요하다고 인지해 분해 억제와 생성에 도움을 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은 이날 발표한 NAD+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안티에이징에 대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제품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나라셀라, 전통소주 개발·제조 돌입

사업목적에 주류제조업 추가

국내와인 유통업체 1호 상장사 나라셀라가 전통 소주 제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나라셀라는 전날 열린 제3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업 목적에 주류 제조업을 추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전통 소주 제조는 나라셀라가 해외에서 호평받는 전통 증류식 소주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작년말부터 진행해 온 사업 계획이다. 회사는 이를 위해 동탄에 소주

제조 파일럿 시설을 완공해 시제품 생산에 돌입했다.

전통 소주 제조를 본격화하게 되면 나라셀라는 국내는 물론, 기 구축된 미국·유럽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지역에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현재 소주 제조 관련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신규로 채용했으며,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시음회를 진행 중이다.

또, 나라셀라는 디캔터와 글라스 등와인 관련 용품과 페어링 안주류수입 및 유통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신원선 기자

현대차그룹, EV9 '세계 올해의 자동차·전기차' 수상

3년 연속 수상... 기술력 입증
아이오닉5N '올해의 고성능차'

현대자동차그룹이 3년 연속 세계 올해의 자동차를 석권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상품성과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현대차그룹은 27일(현지시간) 2024 월드카 어워즈에서 기아의 대형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9이 '세계 올해의 자동차'와 '세계 올해의 전기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차 아이오닉5N도 '세계 올해의 고성능차'에 이름을 올리면서 현대차그룹은 총 3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이로써 현대차그룹은 최근 3년 동안 전기차로 올해의 차 시상식을 휩쓸었다. 2022년 현대차 아이오닉5, 2023년 아이오닉6가 세계 올해의 차에 올랐으며 올해는 기아 EV9까지 수상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이 3개 차종은 모두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의 전기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2020년 기아의 텔루라이드 수상까지 범위를 넓히면 현대차그룹은 최근 5년간 4차례의 세계 올해의 자동차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EV9은 38개 차종이 후보에 오른 세



(왼쪽부터) 기아 글로벌디자인담당 카미르 하비브 부사장, 루크 동커블케 현대차그룹 CDO 겸 COO, 기아 북미권역본부장 윤승규 부사장, 현대차 장재훈 사장, 현대차 글로벌 COO 호세 무노스 사장, 현대제네시스 글로벌디자인담당 이상엽 부사장, 현대차 N브랜드&모터스포츠사업부장 팀 바텐베르크 상무 등 현대차그룹 관계자들이 27일 시상식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계 올해의 자동차 심사에서 볼보 EX30과 BYD Seal을 따돌리고 최종 수상했다. EV9은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퍼릿 유나이티드'의 정수가 담긴 모델로 평가된다. 미래지향적인 분위기와 고급스러움, 친환경성 등 여러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기아 최초의 플래그십 전기 SUV다. 뛰어난 상품성을 기반으로 EV9은 세계 올해의 차와 함께 글로벌 최고의 전기차에 수상하는 '세계 올해의 전기차' 타이틀도 따냈다.

현대차 아이오닉5N은 올해의 고성능차를 수상했다. 아이오닉5N은 현대차의 첨단 전동화 기술을 집약해 주행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N 브랜드 최초의 고성능 전기차다. 현대차는 모터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며 쌓아 올린 경험과 내연기관 N 고성능 차량의 기술력을 아이오닉5N에 적용했다. 세계 올해의 자동차는 북미 올해의 차(NACTOY), 유럽 올해의 차(COTY)와 함께 세계 3대 자동차 상으로 꼽힌다. 특정 지역 시장을 기반으로 평가하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시상 부문은 ▲세계 올해의 자동차 ▲세계 올해의 전기차 ▲세계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 ▲세계 올해의 고성능 자동차 ▲세계 올해의 럭셔리 자동차 ▲세

계 올해의 도심형 자동차 등 6개 부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월드카 어워즈에서 아이오닉 5N이 최고의 고성능차로 인정받아 영광이고 내연 기관에서 갖고 있었던 고성능의 장점을 전기차, 전동화 부분으로 이관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3년 연속 아이오닉 시리즈로 월드카 어워즈를 수상함으로써 현대차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리더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K C&C, '2024년 행복IT 장학금' 전달
SK C&C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u타워에서 인공지능(AI)전문가를 꿈꾸는 장애청년을 위한 '2024년 행복IT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SK C&C 신용운 ESG전략담당(왼쪽)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총장이 기념촬영 하는 모습. /SK C&C



롯데손해보험, '2023 연도대상' 시상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2023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은호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오른쪽)와 '챔피언'을 차지한 강지숙 춘천대리점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



동화약품, 활명수 기념판 수익금 기부
동화약품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 '생명을 살리는 물 캠페인' 기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활명수 기념판 판매 수익금을 통해 마련됐다. 김대현 동화약품 상무(왼쪽)와 권영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동화약품



롯데칠성음료, 해양경찰청 등 ESG 협력
롯데칠성음료는 해양경찰청, 환경재단과 기후 위기 극복 및 맑고 깨끗한 바다 조성을 위한 ESG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왼쪽부터)해양경찰청 오상권 차장, 롯데칠성음료 나한채 음료영업본부장,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김주현 금융위원장, 폴란드 방문... 'K-금융' 진출 방안 모색

야채 폴란드 금융감독청장 회담
현지 진출 기업 금융애로 청취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폴란드를 방문해 K-금융 수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폴란드를 방문해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야채야스트로제브스키(Jacek Jastrzebski) 폴란드 금융감독청장과 회담을 갖고 폴란드 진출을 추진하는 은행들의 인허가 심사를 위해 자료공유 등을 요청했다. 폴란드는 1989년 수교이후 국내 기업들의 유럽 내 생산기지로 불리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지난 2023년 7월 정상회담 이후 방산·원전·인프라, 우크라이나 재건 등 대규모 협력 사업을 위한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과 Jacek 금융감독청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과 야채 야스트로제브스키(Jacek Jastrzebski) 폴란드 금융감독청장이 회담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장은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 지원에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또 폴란드에 진출한 방산·배터리·자동차부품 등 현지 진출기업들과 만나 금융애로를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기업들은 해당분야의 정책적인 금융지원방안과 금융회사가 주도하는 다양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태다. 특

히 폴란드에 국내은행이 없어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 은행과 거래시 신용도·금리 등이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금융당국의 핵심정책 중 하나"라며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협력해 금융지원하도록 하고, 국내은행도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폴란드 방문 이후 오스트리아로 이동해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와 국내 금융사 및 핀테크 기업의 개도국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지원하고, UNICO는 개도국 유망 중소기업을 한국에 소개, 지속가능 성장과 관련한 공공·민간 공동 투자 기회를 발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교역·투자 등 실물 경제에 비해 교류가 적었던 금융 분야에서도 폴란드와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했다"며 "이러한 협력관계가 방산·원전 등 양국간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 현지 진출 기업의 활발한 영업·수출 및 국내 은행의 폴란드 현지 진출 등을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오늘의 날씨

3월 29일(금)
음력: 2월 20일

수도권 날씨
5 ~ 14°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비엘헬스케어, '광동헬스바이오' 새출발

정화영 신임 대표이사 선임

광동제약 계열사 건강기능식품 제조 전문업체 비엘헬스케어가 '광동헬스바이오'가 사명 변경, 신임 대표 선임 등 성장 발판 마련에 나섰다. 광동헬스바이오는 본점 소재지인 충북 청주에 위치한 오창공장에서 '제31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광동헬스바이오는 사명변경을



포함한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또 이사회에서는 지난 4일 영업한 정화영 사장(사진)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밖에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승인 등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인사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김정주
- ◆인문중재위원회 △예산사회계팀장 박진규 △조사팀장 오윤미

부음

▲윤천숙씨 별세, 진세동(금융감독원 가상 자산 조사국 팀장)·진유동·진혜영씨 모친상, 김선애(금융감독원 금융그룹 감독실 사무장)씨 시모상 = 28일 오전 5시, 교원예음 강원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30일 오전 8시, 춘천 안식공원. 033-261-4441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청년의 꿈 하나증권이 응원합니다

내일의 도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증권이 '청년케어'로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하나증권 '청년케어'

하나증권은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약 20만명의 청년 중에서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종합검진 수준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C브랜드240108-0086

하나증권

ELS 부실과 금융당국의 책임



이정혁
西村브리핑

사모펀드에 이어 홍콩 H지수 ELS(추가 연계증권) 사태까지 터지면서 금융감독국이 금융회사의 고객 배상 책임을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결국 금융감독국의 압박에 못이겨 KB국민·신한·하나·NH농협과 SC제일은행이 이번 주 잇따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H지수 ELS 손실 자율 배상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사회 결의가 이뤄지면 은행권은 당장 다음 달부터 H지수 ELS 투자로 손실을 본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율 배상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문제는 금융감독국의 ELS 배상 책임 해결 수준이 사모펀드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국이 이번에도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사실 사모펀드는 부실운용과 사기 운용이 문제였다. 여기에 금융감독국이 판매사는 운용사 포트폴리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독 규정을 고집하면서 부실과 사기가 가능하도록 만든 것도 주요 원인이다. 그런데 금융감독국은 판매사가

모니터링도 못하게 막아 놓은 자신들의 책임은 숨기고 운용사에게 사기를 당한 애꿎은 판매사들한테만 피해 보상을 하라고 종용했다. 판매사와 판매 직원에게 증징계를 내리고, 수조원을 배상하게 했다. 희대의 코미디이자 관치금융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ELS는 어떻게? ELS는 보통 6개월내 조기상환이 되면 약속된 금리를 받지만, 6개월내 상황이 안되면 만기까지 보유하다가 결국에는 손실 볼 확률이 커진다. 여러 지수나 종목을 활용해 구조화한 파생상품인데,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금리는 위험 대비 지나치게 낮다. '초고위험 저수익' 상품인 셈이다. 리스크와 리턴의 균형이 처음부터 맞지 않는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안정성을 추구하는 은행 고객 성향에 맞는 상품이 아니고 더더욱 고객에게 크게 도움도 되지 않는다.

위험은 매우 크고 수익은 작기 때문에, 대신 등 일부 증권사는 오래 전부터 ELS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은 상품이란 이유다. 최근에는 분식에 취약한 홍콩 H지수 문제가 겹쳤으니 손실이 더 커진 것이다. 금융감독국이 주목했어야 하고, 감독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지난 13일 이복현 원장은 "홍콩 ELS 등 고난도 상품 관련해 면밀히 감독 행정을

하지 못해 손실을 본 피해자들, 국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런 면피성 사과는 커다란 재산상 손실을 본 고객들의 분노를 달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상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이런 상품을 팔게 하면 안됐다. 무지의 책임은 뒤로 하고, 이번에도 금융감독국은 적합성과 적정성 설명 의무 등을 지켰는지를 따지며, 금융회사들에 대해 징계 방침을 휘두를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상품을 판다는 것은 리스크를 파는 것이다. ELS 사태 책임의 근간은 금융 상품 판매 원칙을 지켰는지 여부가 아니다. 팔지 않았어야 할 상품을 팔았다는 것이다. 리스크 대비 리턴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상품을 인가해 준 금융감독국과 수익에 눈이 멀어 부실 상품인줄도 모르고 예금하러 온 고객에게 ELS를 팔게 한 금융회사 경영진 모두 우선적으로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금융감독국은 운용사와 판매 직원들에게만 징계를 내리는 어이없는 짓을 제발 멈춰야 한다. 이것보다는 ELS 등 파생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는 전문가들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ljin@metroseoul.co.kr

국민의 선택



박정익
(정치경제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0시를 기해 본격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4명·비례대표 46명), 재·보궐선거 구·시·군의 장 2명, 시·도의회의원 17명, 구·시·군의회의원 26명 등 전국적으로 총 345명의 공직자를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다.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선거 로고송이 울려 퍼지고, 후보자들과 선거 운동원들은 유권자들을 향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 분위기도 점점 가열될 전망이다.

오롯이 국민을 위해 일할 국민의 대표

를 뽑는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을 비롯해 가파르게 치솟은 물가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팍팍하게 만들어 민생현안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조국 심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 각각 첫 공식 선거운동 일성이라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양당 대표의 이러한 선거 유세 지원 방향은 지역 후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네거티브(부정적인) 선거 유세는 각 당의 후보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마타도어(흑색선전)로 인해 선거 후에는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공식 선거운동 전부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고소·고발은 시작됐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민주당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허위사실 등의 혐의로 맞고발한 상황이다.

정책선거, 민생선거를 해야 할 선거가 고소·고발전으로 얼룩져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오히려 갈등을 촉발시키는 셈이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남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정치권과 후보자 간 고소·고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회의원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3일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국민을 위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치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pathfinder@

오늘의 운세 3월 29일 (음 2월 20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조상 땅에서 희소식이 온다. 48년생 오래전 친구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온다. 60년생 오늘의 영광은 어제의 고난에서 오는 보답이다. 72년생 윗사람의 도움으로 위기에 벗어난다. 84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수 없다.



37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선망의 대상일 뿐. 49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은 것은 조상님 사랑. 61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73년생 작은 먼지로도 눈이 아플 수 있다. 85년생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말은 바로 하자.



38년생 마음이 화창하니 복이 절로 굴러들어오는 날. 50년생 기다리던 문서라도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62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마라. 74년생 사주나 관상이 심상만 못하다 했으니. 86년생 감자밭에서 바늘 찾지 않도록.



39년생 말로 말을 이기는 것 그게 뭐 그리 중요한가. 51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으나 사람은 옛사람이 좋은 법. 63년생 뜻하지 않은 곳에서 귀인이 온다. 75년생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변화가 없다. 87년생 좋은 말도 세 번 들으면 싫다.



40년생 세상만사 새옹지마니 일희일비는 금물. 52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허전하다. 64년생 남에게 준 상처는 내게로 돌아오는 법. 76년생 어제의 바람이 태풍이 되어 돌아온다. 88년생 아내 말은 팔로 메주를 쑤든도 듣는다.



41년생 머리가 맑고 상쾌한 날. 53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65년생 지인 관리를 잘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 77년생 자기만 생각하면 주변 질서가 깨진다. 89년생 가족 모임에서 도토리처럼 찬밥.



42년생 자식의 말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54년생 붉은색 옷이 행운을 가져오니 기분 전환이 된다. 66년생 모난 돌이 정 맞으니 까다롭기보다는. 78년생 우물에서 송농 찾지 말고 순서대로. 90년생 같은 값이면 금가락지 낀 손에 맞으라.



43년생 피곤한 날이니 외출을 자제. 55년생 밤이 깊다고 새벽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니 희망을 버리지 마라. 67년생 내뱀에 음주하고 운전하지 마라. 79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데. 91년생 굶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44년생 나이 들어가면서 후천운의 재물이 평탄하다. 56년생 평소 해오던 저축이 아군 역할을 하니 든든하다. 68년생 계획이 이루어진다. 80년생 산도 좋고 물도 좋는데 내가 머무를 곳은 없다. 92년생 이제 배운 도박이 날 세는 줄 모른다.



45년생 모임에서 무장된 우리가 있으니 말조심. 57년생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일이 잘 풀린다. 69년생 가족의 협조를 얻어 고인 매듭을 풀어나가자. 81년생 늙으면 팔시를 받으니 젊어서 열심히. 93년생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음.



46년생 나의 특기를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니 즐겁다. 58년생 추사 김정희를 그리며 그림에 관심을 갖는다. 70년생 물도 조심해서 마셔야 한다. 82년생 직장에서 눈 밖에 나서 신임 잃지 않도록. 94년생 한번을 참으면 만사가 편안해진다.



47년생 기다림에 지쳐 목이 아프다. 59년생 행운이 손짓하는 날이니 과감한 선택도 무방하다. 71년생 일이 미뤄져도 기다리면 오후 좋은 일이 있다. 83년생 꽃이 피었는 데 내 마음은 겨울. 95년생 복이 바란다고 해서 똑 떨어지는 것이겠는가.



김상회의四季

인연 손절

사람을 얻는 것이 세상을 얻는 것이라 말이 있듯이 좋은 인연은 황금을 얻는 것보다 귀한 일이다. 살아가다 보면 가장 힘들고 피곤한 것이 인간관계이기도 하다. 성격에 따라 사람을 잘 사귀는 사람들도 있고 친해지기 전까지는 자기 속내를 잘 내비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인간은 혼자라 하지만 현대사회는 군중 속의 고독이 일반화된 것 같기도 하고 아예 히키코모리라 하여 자기 방에 틀어박혀 한 지붕 밑에 사는 가족들 과도 교류를 단절하고 사는 이들도 많아진 시대다. 자신과 통하는 진실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좋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영국의 진화심리학자인 로빈 던바는 소위 '절친'이라 할 수 있는 친구가 5명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더 나아가 절친까지는 아니더라도 친한 친구 15명 좋은 친구 50명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절친이 5명이 있다면 이는 정말 성공한 인생이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세대는 좋은 친구를 좋은 인연을 맺는 일보다 나에게 감정적 재물적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손절하는 것을 강조한다. 하도 속이고 상처 주는 일들이 많다 보니 이해가 가기도 한다. 인연 손절의 이유는 다양하리라. 나를 뒤에서 험담하거나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받는 것에 익숙하고 자기 것 베푸는 데는 인색한 사람 등등. 필자는 다른 건 몰라도 같이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이것에 둔다. 시간 약속을 사소하게 알고 쉽게 그 약속을 반복하는 사람들 말이다. 불가피한 일로 인해 늦거나 약속을 바꿀 수는 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시간에 늦고 약속을 했다가도 감정 기록에 따라 변덕을 내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이들이 운의 기운이 좋게 풀리지 않음도 물론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알파벳을 증가시키며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3			5	6		7	8
6		2	7					5
					5		6	
9		7						1
3								6
	4					7		9
	2		8					
4					2	1		7
7	6		4	8				2

9				3				2
		1		2	6	9		
	8	6				5	3	
4	6		3		2			
	1							2
			4		8		9	6
	9	3				2	1	
		2	5	3		1		
5			2					3

1	2	9	6	8	7	8	9	2
2	8	1	2	9	6	8	6	7
7	8	9	2	6	8	9	2	1
6	8	9	2	1	2	9	7	9
9	6	2	8	7	9	1	2	8
8	1	8	7	2	9	2	9	6
2	9	8	9	2	6	7	1	8
9	7	6	1	8	2	8	9	8
8	2	4	9	5	1	6	8	2

8	7	9	6	1	2	8	2	9
6	8	1	2	8	9	2	7	9
9	1	2	7	9	2	8	6	8
9	6	8	8	2	7	9	2	1
8	2	7	9	6	9	2	1	8
1	2	8	2	9	6	8	9	7
2	9	6	9	2	8	1	8	2
2	9	2	8	1	7	6	9	8
2	9	2	8	1	7	6	9	8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0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50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LG 직원들이 LG트윈타워 저층부 공용공간 '커넥트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LG 직원들이 동관 2층에 신규 조성된 '트윈 피트니스'에서 운동기구를 체험하고 있다. / (주)LG

사람·자연·공간 '연결' 초점... “직원들의 워라블 챙겨요”

〈일·삶 융합〉

LG트윈타워, 37년 만에 새단장

LG그룹 본사인 LG트윈타워가 1987년 완공 이후 처음으로 37년 만에 새 단장했다.

LG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트윈타워에 대해 지난해 2월 리모델링을 시작한 지 1년 2개월 만에 로비와 아케이드 등 지하 1층~지상 5층 공용공간을 전면 탈바꿈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리모델링 면적은 축구장 세 개 크기에 달한다. LG는 새로워진 공간을 통해 임직원의 업무 효율과 일상의 만족도를 높이고 LG트윈타워만의 ‘공간문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축구장 세 개 크기에 달하는 면적 업무효율성·일상의 만족 높이기 ‘공간 문화’ 창출 등에 전면 탈바꿈

◆공간과 공간 ‘연결’ 강화

LG는 새롭게 오픈한 저층부 공용공간을 ‘커넥트윈(Connectwin)’으로 명명했다. 뜻은 ‘트윈타워를 연결한다’는 의미의 ‘Connect Twin’과 ‘성공적인 회사 생활을 위한 연결’을 의미하는 ‘Connect to Win’의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다. LG는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LG트윈타워 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공간과 공간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람과 사람’ 간 연결을 위해 ‘커넥트윈’ 곳곳에 휴식 공간과 미팅 장소를 대폭 늘렸다. 동관과 서관 1층 로비에는 고객사와 미팅이 가능한 회의실이 있고, 카페도 모두 4곳이다.

‘사람과 자연’ 간 연결 강화에도 힘썼다. 1층 로비 공간의 내부 구조를 단순화하고 지하에 동남향 천장창을 만들어 자연채광과 개방감을 더했으며, 건물 출입구 앞에는 분수와 야외 정원을 만들어 LG트윈타워를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자연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건물을 이용할 때 기존 동선의 효율성이 낮아 불편하다는 임직원들의 요청 사항을 받아들여 계단과 다리 등을 새

로 만들어 ‘공간과 공간’ 간 연결도 강화했다.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1층 로비에서 식음시설이 위치한 지하 1층으로 연결되는 대형 계단, 동관과 서관의 각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 공간을 연결하는 계단, 동관 2층과 서관 2층을 잇는 다리를 만들었다.

동관 2층에는 피트니스센터가, 서관 2층에는 사내부속의원, 약국, 은행 등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피트니스센터와 사내부속의원은 신규 시설에 대한 수요조사에서 임직원이 가장 선호한 시설이며, 각각 5월과 7월에 운영을 시작한다.

LG는 ‘커넥트윈’을 리모델링하며 건축 디자인 차원에서 과거와 미래의 연결에도 집중했다. 이번 공사는 1980년대 초 LG트윈타워를 설계한 미국의 건축사무소 ‘SOM’이 공간디자인을 다시 맡아 리모델링 이전의 공간이 리모델링 이후 미래에도 잘 계승될 수 있도록 했다.

지하 1층 중심부 한 칸에서는 리모델링 이전의 바닥 타일과 새로운 바닥 타일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곳에서는 내달부터 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 하나의 그림에서 과거의 혁신과 최근의 혁신을 교차해서 보여주는 렌티큘러 작품이 전시된다. 예를 들어 1966년 금성사(현 LG전자)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흑백 TV와 현재 LG 올레드 TV가 하나의 그림에 같이 담겨 있다.

◆임직원 의견 반영 ‘푸드코트’ 구성

LG는 이번 리모델링 과정에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 ‘뉴트윈 소통 페이지’를 온라인에 개설해 임직원의 의견을 반영했다.

LG트윈타워 구내식당은 기존 6가지 메뉴의 급식형

식당을 중심으로 운영됐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임직원 선호도 조사를 바탕으로 푸드코트를 추가로 구성하고 외부 브랜드도 입점시켰다. 점심에만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분식 등 20가지가 넘는 메뉴를 제공하며, 샐러드 등 건강식과 셀프라면 코너도 마련됐다.

피트니스센터·약국 등 다 갖춰 임직원들 의견 반영한 푸드코트 ‘커넥트 온’으로 스케줄 확인도

LG 임직원들은 트윈타워 전용 모바일 앱 ‘커넥트 온’을 통해 트윈타워의 모든 식음시설 결제를 포함해 ▲예약 ▲웨이팅 등록 ▲음식 포장 요청 ▲회의실 예약 ▲사내부속의원 예약 ▲통근버

스케줄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LG는 트윈타워 재개장에 맞춰 내달 2일부터 3일 동안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 심규민, 강재훈 등의 공연을 열고, ‘워크-라이프 블렌딩’을 주제로 외부 강사의 특강을 진행하는 등 임직원 대상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4월 중순에는 지난해 LG트윈스의 29년만 통합우승을 기념하는 ‘LG트윈스 챔피언 팝업 전시’가 계획돼 있다. 이 전시에서는 LG트윈스의 우승 트로피, 한국시리즈 MVP 오지환 선수의 글러브와 볼렉스 시계, 우승 기념주인 아와모리 소주 등을 볼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LG 직원들이 LG트윈타워 저층부 공용공간 '커넥트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바스타비 **잡**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정부, 내년까지 50만 軍 장병 경제교육... AI 교육 플랫폼 구축
▲러 대외정보국 25~27일 방북... “적대세력 정탐모략책동 대처” / 사진 뉴시스

▲육군, 한미연합 KCTC훈련 실시...미해병대 최초 참가
▲백두산, ‘中 참바이산’으로 유네스코 등재... 정부 “계속 주시”



▲北무기개발 자금조달 관여 개인 6명·기관 2곳 제재 / 사진 뉴시스
▲건설업계 “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환영... 지방 미분양·PF 정상화 큰 도움

입소문만으로 품절대란... 한국인 사로잡은 '신퀸타'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알렉스 엔드리치 산 마르짜노 수출매니저가 한국을 방문해 신퀸타 블랙 에디션 설명하고 있다. /금양인터내셔널

교실에서 조용히 있던 아이가 1등을 했다. 의아했지만 한 번쯤은 뭐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다음 학기 성적표를 받아보니 또 1등을 했다. 분기별로도, 계절이 바뀌어도, 해가 넘어가도 말이다.

이쯤되니 다들 궁금해졌다. 비결이 뭐니. 이탈리아 산 마르짜노의 와인 '신퀸타' 얘기다. 금양인터내셔널이 와인을 내놓고 별다른 마케팅도 하지 않았는데 품절 대란이 일어났다. 작년 주류수입 통계를 보면 이탈리아 와인이 25% 인팍으로 줄었는데 신퀸타는 오히려 더 팔렸다. 알렉스 엔드리치 산 마르짜노 수출매니저는 신퀸타 블랙 에디션 출시에 앞서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퀸타는 강한 소스나 풍미, 매우 맛도 많은 한국 음식과 잘 어울린다"며 "집밥과 편하게 마실 수도 있고, 그냥 와인만

가볍게 즐기기도 좋은 와인"이라고 말했다. 블랙베리나 자두 같은 과실미에 후추향이 어우러진다. 무게감이 있고 기본적으로 드라이한 와인이지만 과일잼에서 느낄 만한 잔당감이 전체 균형감을 맛깔나게 맞춰준다. 처음부터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만드려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누구나 호불호 없이 좋아할 맛이다. 입소문만으로 품절대란을 일으켰던 비결이었다.

신퀸타는 이탈리아어로 숫자 50을 뜻한다. 산 마르짜노 50주년을 기념해 만든 와인인데 반응이 좋게 나오면서 정식 와인으로 자리를 잡았다. 올해 처음으로 출시하는 블랙 에디션은 한국 소비자들이 점차 프리미엄 와인을 선호하기 시작한 것에 착안해 수입사가 먼저 와이너리에 제안하면서 나오게 됐다.

신퀸타 블랙은 프리미티보와 네그로아마로 품종을 절반씩 섞어 만든다. 프리미티보는 우리가 진판델로 알고 있는 그 품종을 이탈리아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색이 진하고, 달콤하다. 당도가 높으니 알코올 도수도 높은 편이다. 네그로아마로는 이탈리아에서도 빨리아 지역의 레드와인 품종이다. 신퀸타에서 느낄 수 있었던 향신료 후추향이 네그로아마로에서 나왔다고 보면 된다.

둘 다 토착품종이고, 빨리아 와이너리 누구나 키운다. 관건은 자칫하면 강하기만 할 수 있는 이 품종들을 누가 잘 다루느냐다. 그에 따라 와인의 격이 달라진다.

알렉스 수출매니저는 "프리미티보 품종의 경우 야생동물 풍미에 산도도 높고, 자칫하면 과할 수 있어서 뒤는 부분을 잘 컨트롤 하는 것

이 중요하다"며 "산 마르짜노는 같은 품종이라도 포도밭을 2곳으로 나눠 한 쪽은 과실미와 풍미를 살려 재배하고, 다른 쪽은 신선미와 적당한 산도를 줄 수 있도록 해 시중의 같은 품종 와인보다 균형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고령 100년에 달하는 올드바인은 포도 생산량은 적지만 특유의 집중력과 농밀함을 가지게 했다.

신퀸타의 레이블을 보면 생산연도, 즉 빈티지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품종만 놓고 보면 단순히 프리미티보와 네그로아마로 50%씩이지만 해당 품종 내에서도 여러 빈티지와 배럴 가운데 맛이 좋은 것들을 골라 섞다보니 그렇다. 삼페인의 논빈티지 양조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레이블의 뒷쪽을 보면 숫자가 나와 있는데 '+6'이면 신퀸타가 처음 나온 해부터 6년 뒤인 2018년에 나온 와인이란 얘기다.

알렉스 수출매니저는 "블랙 에디션은 단순한 와인이 아닌 이탈리아 와인 제조의 장인정신과 혁신적인 정신에 대한 증거"라며 "오크통에서의 추가숙성을 통해 와인의 복잡성, 깊이, 향을 높여 병에 담긴 훨씬 더 매력적인 이야기로 만든다"고 강조했다. /smahnt@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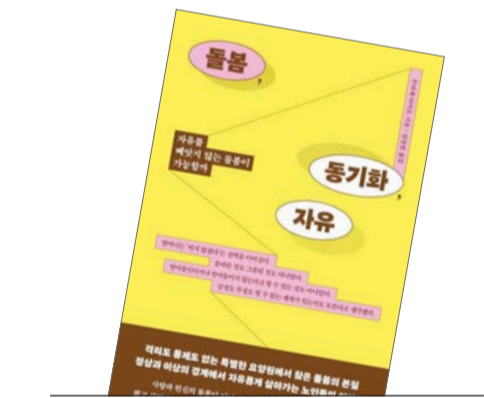
주말은 책과 함께

노인 돌봄과 자유의 공존

언젠가부터 할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게 됐다. 전화를 받으면 할머니는 큰아빠 이름을 불러댔다. 하루에도 몇 번씩 비슷한 일이 반복됐고 슬슬 화가 올라오기 시작했지만, 할머니한테 성질을 부릴 순 없었기에 그냥 전화를 무시하는 걸로 대응했다. 엇그제는 부재중 전화가 20통이나 찍혀 있었다. 전부 '할머니'였다. 어디 아픈가 싶어 걱정돼 전화를 걸었다. "무슨 일 있어?"라고 묻자 할머니는 "너는 누구냐?"고 되물었다.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더니 할머니는 "바쁘면 인사도 않고 끊어도 되는 거냐"며 버럭 화를 냈다.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바쁘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 들어!"라는 내 말에 할머니는 소리를 뿜 질렀다. 둘 다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었고, 통화는 그렇게 끝이 났다.

할머니를 좋아했다. 그녀가 90살이 되기 전까지는. 더 정확하게는 기억이 오락가락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할머니는 뛰어난 기억력의 소유자였다. 다섯 명의 자식은 물론이거니와 손주 10명이 태어난 날을 전부 기억했다가 생일 당일엔 맞춰 전화를 걸어 축하한다며 따뜻한 인사말을 전하곤 했다. 엄마 아빠 몰래 통장에 용돈도 넣어줬다. 그랬던 할머니가 아흔 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렸다.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며 질릴 때까지 반복했고, 귀가 어두워져 대화하기도 힘들어졌다.

늙는다는 건 무엇이고, 노인을 돌본다는 건 어떤 일일까. '돌봄, 동기화, 자유'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다. 저자는 노인요양시설 '요리아이의 숲'의 소장인 무라세 다카오. 인지



돌봄, 동기화, 자유
무라세 다카오 지음/김영현 옮김/다다서재

장애가 있는 고령자를 돌보는 '요리아이'는 노인을 가두지 않고, 진정제를 투여하지 않으며, 원할 땀 언제든지 외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운영 철학으로 일본 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노인들의 생활을 보살피던 저자는 노화가 진행되는 육체에 생각지 못한 잠재력이 숨어 있던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입보다 유창하게 말하는 눈빛, 무당보다 뛰어난 말솜씨, 에너지가 흘러넘치는 혼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도약력...

저자는 "몸이 점점 자유롭지 않게 되면서 사회의 개념적인 것에서 점점 자유로워지는 과정이 늙는 것이라고 한다면, 노쇠의 세계란 과연 어떤 곳일까. 그곳이 어떤 곳이든 '늙음'이란 '노쇠=기능 저하'라는 등식에 전부 담을 수 없는 생기 넘치는 과정"이라며 "반데기 속에서 몸이 걸쭉하게 녹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듯한, 역동적이고 극적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328쪽. 1만8000원. /김현정기자 hjk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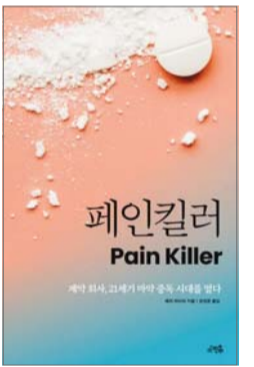
페인킬러

배리 마이어 지음/장정문 옮김/소우주

2021년 미국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가 10만명을 돌파했다. 이들 대다수가 마약성 진통제, 즉 오피오이드에 중독돼 세상을 등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제약 회사에서 생산하고 의사가 처방한 합법적인 약물을 과다 복용해 죽음에 이른 미국인만 해도 25만명이 넘는다.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오피오이드 중독 사태. 이 모든 재앙

의 시작점에는 옥시코틴이라는 약물이 있다.

책은 옥시코틴을 판매한 퍼듀 파마와 그 배후에 있는 새클러 가문의 어두운 세계를 폭로하며, 제약 회사의 탐욕, FDA의 허술한 규제, 잘못된 의료 관행이 얽히고설켜 매년 수십만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초래된 과정을 낱알이 까발린다. 252쪽. 1만6000원.



사피엔스의 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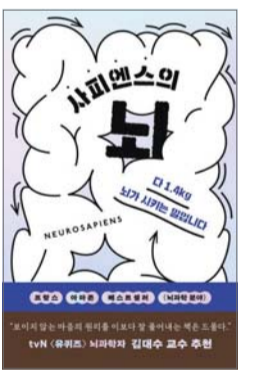
야나이스 루 지음/류시 알브레히트 그림/이세진 옮김/월북

왜 새해 결심은 일주일도 못 버티는 걸까. 일을 미리 하지 않고 끝까지 미루는 이유는 뭘까. 이 모든 일의 배후에 1.4kg의 뇌가 있다. 몸과 맘이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건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진화해온 뇌의 시스템 때문이라고 책은 설명한다.

뇌는 연료비가 매우 비싼 기관이라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으려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의사 결정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운동 가기를 미루고 소파에 누워 있고 싶은 마음, 어려운 과제를 마감까지 미루는 행동, 새로운 아이디어보다 익숙한 고정관념에 안주하는 일은 모두 뇌의 에너지 절약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인간의 진실을 비추는 뇌과학 이야기.

324쪽. 1만9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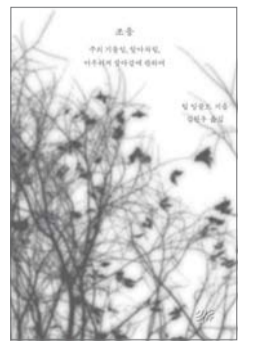


조용

팀 잉골드 지음/기량서사

'조용'은 세계 속 우리의 존재가 인간과 비인간을 포괄하는 타자와 사물들에게 빛지고 있음을 인식하며 응답하려는 감각이자, 응답을 책임으로 바꿔 나가는 삶의 방식을 뜻한다. 영국의 사회인류학자인 팀 잉골드는 오늘날 지구를 위협하는 총체적 생태 위기는 인간이 조용하는 법을 망각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조용은 이론이기 이전에 구체적인 몸의 감각이며 행위이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이 서로의 삶에 반응하고 개입하며 얽혀 세계를 이룬 방식이다. 문명의 전개 과정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본연의 조용을 다시 익혀야만 세계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저자는 조언한다. 360쪽. 2만3000원.



뉴스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불발...관찰 대상국 유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오늘 표결 /사진 뉴시스

▲올해 유럽 전기차 4분의1은 중국산...차(車)관세 부과할 듯
▲중국, 호주산 와인 반덤핑·반보조금 관세 폐지



▲모로코경찰, 카사블랑카 마약조직 4명 살상... 10.3톤 압수
▲바이든정부, 석유·가스 채굴시 메탄 가스 유출 강력 단속에 나서 /사진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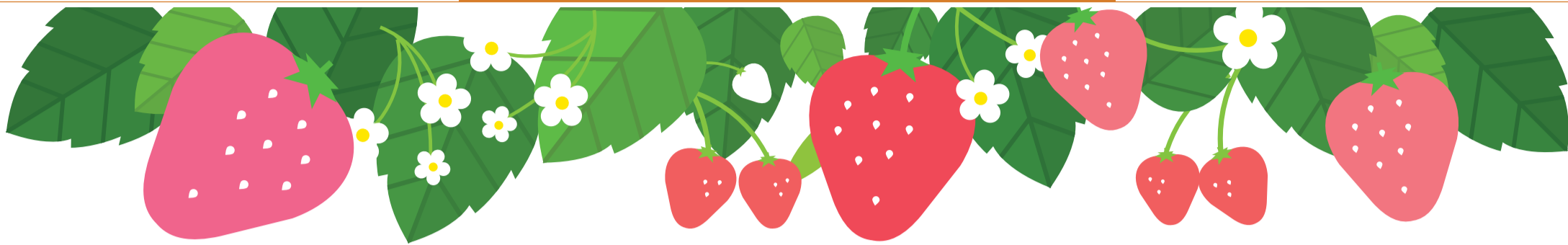


KT&G
'에세 체인지'
방경만 사장 선임
L1



Life

LG트윈타워
37년만에
새단장
L5



상큼 달콤한 딸기과육 가득... 당류 줄어도 '베리' 굿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오뚜기 '딸기잼'

국내 최초 프리저브 딸기잼 출시
가열시간 짧아 맛↑영양손실 ↓
기계 최소화... 과육 원형 그대로
엑스레이 등 철저한 위생설비 활용

풍부한 과즙과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 딸기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각종 가공식품의 주원료로도 활용도가 높다. 대표적인 예가 달콤한 '딸기잼'이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국내 잼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412억원(금액 기준)으로 이 중 딸기잼 시장 규모는 327억원 수준이다. 전체 잼 시장에서 딸기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3.7%(판매 중량 기준)에 이른다.

국내에서 최초로 과육의 원형을 살린 프리저브 딸기잼을 출시한 곳은 오뚜기다. 오뚜기는 신선한 국산 딸기를 사용한 잼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주부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아왔다.

◆국내 최초 '프리저브 잼' 시장 개척

오뚜기는 1985년 안양공장에 잼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같은 해 8월 오뚜기 '딸기잼'을 출시했다. 국내 최초의 양산형 프리저브 잼으로, 가열시간을 짧게 해 과육의 원형을 살리고 맛과 영양 손실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신선한 원료를 직접 선별하고 진공 농축을 통해 과일 본연의 향과 색을 살린 프리저브 잼은 과일을 갈아 만든 그라인드형 제품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국내의 대형 식품기업의 잼들의 과일 함유량이 15%~30% 정도에 불과한 데 반해 오뚜기 딸기잼은 딸기 함유량이 50%나 된다.

잼 생산 공정에서 기계 활용을 최소화한 점도 눈길을 끈다. 오뚜기는 과육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낙하 방식의 이송 시스템을 적용하고, 육안 선별을 통해 이물을 제어하고 있다. 유리병 내부의 이물은 엑스레이(X-ray) 설비를 활용하여 제어한다.

잼을 제조할 때에는 침이나 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수분 등이 섞이게 되면 당분 농도가 변하면 미생물이 생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금방 상할 수 있다. 이에 오뚜기는 철저한 위생 설비 시설에서 제품을 생산한다.

오뚜기는 약 40년 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잼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대표 제품인 오뚜기 '딸기잼(300g·500g·850g)'은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3년간 국내 잼 시장에서 38.9%(수량 기준)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세부 품목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오뚜기 '딸기잼(500g)'의 비중이 전체의 21.3%



국내 최초 과육 원형을 살린 프리저브 딸기잼 '오뚜기 딸기잼'.

소비자 니즈 반영한 라인업 확대 당 함량 30% 줄인 라이트 슈가 잼 간편하게 발라먹는 일회용 스틱잼 신규 맛 개발해 카테고리 확장할 것

로 가장 높다.

최근에는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라인업을 확대, 소비자들에게 다채로운 달콤함을 선사하고 있다.

◆건강과 편의성 고려해 라인업 확대

오뚜기는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당류를 줄인 제품 출시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오뚜기는 과육 본연의 맛은 살리고 당 함량은 낮춘 '라이트 슈가(Light Sugar) 딸기잼'을 선보였다. 시장 점유율 상위 3개 제품 대비 당 함량을 30% 줄였으며, 딸기 특산지인 충청남도 논산에서 수확한 딸기를 사용해 새콤달콤한 풍미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논산은 전국 최대의 딸기 주산지로서 이 일대는 비옥한 토양과 맑은 물, 풍부한 일조량으로 딸기 재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논산 딸기는 딸기의 맛과 향, 당도가 우수해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다. 함께 출시한 자두잼은 김천 자두를 활용했다.

제품 패키지에는 투명 라벨을 적용해 신선한 과육의 색과 질감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제품의 성분과 원재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국내 특산지 과육을 담은 '라이트 슈가 잼'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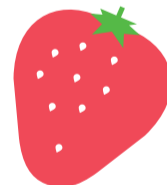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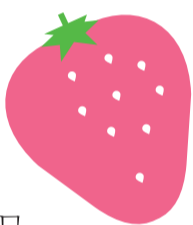
2022년 9월에는 기존 '아임스틱 딸기잼'을 '아임스틱 가법당 딸기잼'으로 리뉴얼 출시한 바 있다. 소용량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개별 날개 포장을 적용한 1회용 스틱잼으로 리뉴얼을 통해 시장 점유율 상위 3개 제품 대비 당 함량을 25% 낮췄다.

'아임스틱 딸기잼'은 취식과 보관, 활용이 간편한 일회용 스틱잼으로 스푼이나 나이프가 필요한 기존 제품과 차별화한 것이 특징이다. 박스에서 한 개씩 빼 먹을 수 있는 슬림한 스틱 형태로 힘들게 유리병을 열거나 사용한 스푼을 다시 씻겨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그대로 빵이 발라 쉽게 먹을 수 있다.

스틱 1개(20g)당 식빵 1장에 딱 맞는 양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며, 캠핑, 여행 등 야외활동에서도 활용하기 좋다.

오뚜기 관계자는 "상큼 달콤한 딸기의 계절을 맞아, 엄선한 국산 딸기의 맛과 영양을 담은 '오뚜기 딸기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기호가 더욱 다양해진 만큼 신규 플레이버를 꾸준히 개발해 잼 카테고리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당 함량을 30% 줄인 '오뚜기 라이트 슈가잼' 2종.

/오뚜기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 제21회 사랑의 음악회 '봄의향연' 개최
▲소프라노 조수미, 급성후두염...KBS교향악단 800회 연주회 프로 변경 /사진 뉴시스

▲영화 '땃글부대', '파묘'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 등극
▲에스파 런던 콘서트 실황, 영화관에서 본다



▲BTS 세계관 드라마로 녹이다... '유스' 4년만 공개
▲한국문화재단, 전통예술공연 출연자 공개 모집 /사진 뉴시스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사각의 테이블 위를 수놓을 열정의 땀방울!
지금 은 탁구대표팀 선수들이 만들어낼
역대급 명승부를 직관할 시간!

신한은행 2024 인천 WTT 챔피언스
일시: 2024년 3월 27일~31일
장소: 인스파이어 아레나(인천 영종도)

신한은행 2024 인천 WTT 챔피언스에 출전하는
탁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신유빈

이시은

전지희

안재현

이상수

임종훈

장우진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랜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